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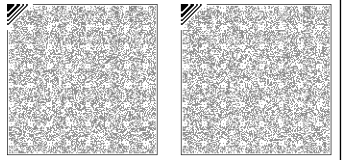
다 함께하는 사회구현

# 새보람

## SAEBORAM

Voiceye Saeboram News

소리로 읽는 새보람



사단법인 한국지체장애인협회 (02)796-4280

www.kappd.or.kr

제255호

2014년 5·6월

## HEADLINE

뉴스 5P

[기획] 있으나 마나한 보장구 급여



특집 12~13P

‘장애인 당선인 축하연’ 이모저모



인물 14P

장애 학생들의 고민 해결사



국제 18P

월드컵 개막식 장애인 시축 눈길



## 6·4지방선거 장애인 당선인 축하연 개최

당선인들 “장애인 위해 열심히 펼 것” 한 목소리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장애인 당선인 축하연'에서 지장협 김광환 중앙회장, 내·외빈, 장애인 당선인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단법인 한국지체장애인협회(중앙회장 김광환, 이하 지장협)가 6월 20일 서울 공군회관에서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장애인 당선인 축하연’을 열고 당선인들에게 축하패를 전달했다.

지난 6월 4일 실시된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는 지장협 회원 및 관계자 24명을 포함해 총 87명(기초자치단체장 5명, 광역의원 26명, 기초의원 56명)의 장애인 당선인이 선출된바 있다.

이날 축하연에는 전국 자치단체, 광역의회, 기초의회의 장애인 당선인이 참석해 민선6기 임기 동안 지역 장애인들을 위해 열심히 뛰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서울특별시의회 박마루 당선인은

“장애인 복지 정책 제안과 조례 제정, 지역 주민의 복지 향상을 위해 적극 앞장서는 것이 우리를 뽑아준 분들에게 보답하는 길”이라며 “건전하고 생산적인 복지국가의 초석을 다지는 선봉에 설 것”을 약속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유진의 당선인은 “장애인 당사자이자 여성으로서 사회적 약자의 삶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정책 및 조례를 제정하고 장애인 복지 발전을 위해 성실하고 청렴하게 의정활동에 임할 것”을 다짐했다.

장애인단체 대표 및 국회의원들은 장애인 당선인들에게 지역 장애인 문제 해결에 힘을 보태 줄 것을 당부했다.

지장협 김광환 중앙회장은 “이제

는 장애인들이 정책의 수혜자가 아닌 정책의 제안자, 정책의 입안자로 도약하는 시대가 왔다”며 “전국 500만 장애인을 위해 내걸었던 공약을 성실하게 수행해줄 것”을 주문했다.

새누리당 심재철 최고위원은 “장애인 당사자들이 능력 있다는 것을 의정활동을 통해 보여주길 바란다”며 “모든 당선인들이 의정 현장에서 일을 잘 해줄 거라 믿는다”고 말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안철수 공동대표는 “장애인을 얼마나 배려하느냐가 국가의 품격을 나타내는 지표라 생각한다”며 “장애인 당선인들이 품격 있는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앞장서 주길 바란다”는 메시지를 전해왔다.

<12~13면에 계속>

### 7월부터 장애인연금 확대 지원

장애인연금법 개정안이 5월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7월부터 장애인연금 기초급여가 인상되고 대상자가 확대된다.

기초급여는 9만9100원에서 20만원으로 인상되며 전년도 전국 소비자 물가 변동률을 반영해 보건복지부 장관이 매년 조정해 고시한다.

장애인연금 수급자 선정기준액은 68만원에서 87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장애인연금은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 및 재산을 합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18세 이상 등록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장애인연금 기초급여 인상 및 대상자 확대에 따라 연간 99억원의 예산이 추가 소요되고 5200여명이 추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장애인연금 홈페이지(<http://www.bokjiro.go.kr/pension>)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새보람 매니아를 찾습니다.

혹시 20년전 발행된 오래전 새보람을 가지고 있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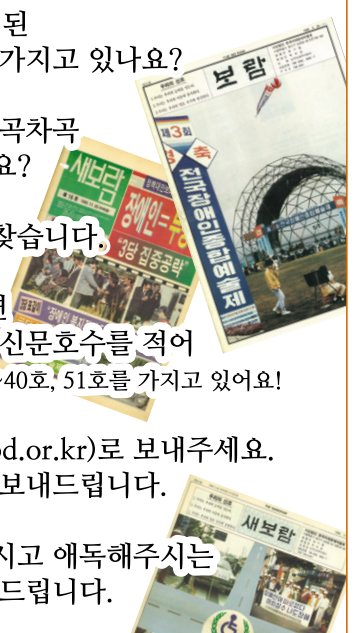
혹시 새보람을 차곡차곡 편철하고 계신가요?

새보람매니아를 찾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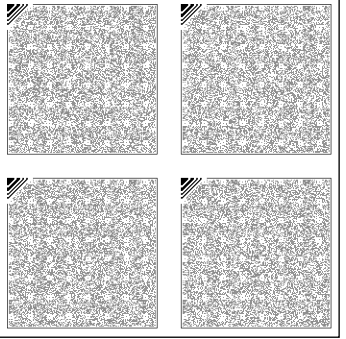
새보람매니아라면 보유하고 계시는 신문호수를 적어 (예)저는 10호, 20호~40호, 51호를 가지고 있어요!

이메일([oh@kappd.or.kr](mailto:oh@kappd.or.kr))로 보내주세요. 소정의 기념품을 보내드립니다.

새보람을 아껴주시고 애독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소리로 읽는 새보람



# 발달장애인법 국회 본회의 통과

## 시행령 제정 및 소득보장 과제 남아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대안이 지난 4월 제324회 국회 제1차 본회의에서 재석의원 186명 중 181명 찬성으로 통과됐다. 법안 발의 약 2년 만이다.

지난 2012년 새누리당 김정록 의원은 장애계의 의견을 반영해 19대 국회 제1호 법안으로 발달장애인법을 발의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는 예산 부족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며 2013년 새누리당 김명연 의원을 통해 정부의 의견이 담긴 법안을 발의했다.

김정록 의원안은 개인 맞춤형 통합서비스 전달체계 구축, 최소한의 사회 서비스 제공, 발달장애인의 소득보장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김명연 의원안에는 이러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지 않거나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



발달장애인법제정추진연대가 발달장애인법 국회 본회의 통과 환영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았다. 장애계와 정부가 큰 의견차를 보인 셈이다.

이에 발달장애인법제정추진연대(이하 발제련)는 쟁점사항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 내기 위해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보건복지부와 7차례 면담을 가졌다.

이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김정록 의원안과 김명연 의원안

을 병합 심사하기로 하고 4월 14일과 17일 두 차례 법안심사소 위원회를 개최, 최종 법안을 마련한바 있다.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은 발달장애인 소득보장을 제외한 장애계의 요구가 상당 부분 반영, 발달장애인의 특성과

요구를 고려한 특화된 복지서비스 제공·인권침해 예방 및 권리구제 지원·개인별 맞춤형 지원 및 별도의 전달체계 구축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법률안은 정부로 이송, 공포된 뒤 1년 6개월 이후부터 법적 효력을 발휘하게 된다.

한편 발제련은 정부에 발달장

애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을 위한 공동기구 구성을 제안하는 한편 만족할 만한 협의를 이끌어 내지 못한 발달장애인 소득보장을 위해 힘써나갈 계획이다.

발제련 윤종술 대표는 5월 19일 여의도 이룸센터 누리홀에서 열린 ‘발달장애인법제정 보고대회’에서 “발달장애인법이 아직은 허전한 법안이라 생각하는데 이유는 소득보장 때문”이라며 “소득보장과 관련해 원하는 만큼의 성과를 끌어내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발제련은 이날 발달장애인법 제정에 힘을 보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오제세 위원장, 새누리당 김정록·진영 의원, 새정치민주연합 이목희·최동익 의원에 감사패를 전달했다.

## 장애인 보장구 보험 급여 지원 절차 개선

### 사전승인 없이 구입해도 급여 지급

장애인 전동휠체어와 전동스쿠터 등 전동보장구를 구입하기 전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사전승인을 거치지 않아도 급여비를 지급받을 수 있게 됐다.

이전에는 전동보장구 구입시 해당 전문의의 처방전을 받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급여 신청을 하고 급여 대상 통보를 받은 후 구입을 해야 급여비를 지급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사전승인 절차를 몰라 급여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6월 16일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사전승인을 거치지 않고 전동보장구를 구입한 경우에도 구입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구입 영수증을 첨부해 승인 신청을 하면 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시행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급여 대상임에도 절차를 몰라 관련 제도를 이용하지 못한 채 보장구를 구입한 장애인들을 구제하기 위해 이번 조치를 취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고가의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에 대해 보험지원 여부를 확인하고 구입하는 것이 장애인들에게도 안전한 만큼 사전 승인제도를 적극 이용할 것”을 당부했다.

## 장애인 활동지원 대상 올해 3급까지 확대

복지부 문형표 장관, 장애계와 면담 가져

보건복지부 문형표 장관이 현재 1·2급 장애인에게만 제공되고 있는 장애인 활동지원제도 대상을 올해 안으로 3급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전장연)에 따르면 문 장관은 5월 9일 광화문 정부중앙청사에서 전장연 박경석 상임공동대표와 면담을 갖고 이같이 밝혔다.

전장연 등 장애계는 지난 4월 활동지원서비스를 받지 못한 중증장애인 故 송국현 씨가 화재 사고로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재발 방지 대책을 촉구하며 문 장관과의 면담을 요구해왔다.

장애등급 3급이던 송 씨가 활동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었다면 참변을 막을 수 있

었다는 것이 장애계의 주장이다.

이에 문 장관은 내년에 활동지원서비스 대상을 3급까지 확대할 예정이었으나 이를 앞당겨 올해 안으로 추진하고 이후 장애등급 적용을 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활동지원서비스 24시간 보장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탈시설 장애인에 대한 지원 확대도 검토해 보겠다고 덧붙였다.

송 씨 사건과 관련한 공식 사과 요구에는 유감을 표명했다.

장애등급제 폐지 등의 논의에 장애계의 의견을 배제하지 말라는 지적에는 앞으로 함께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1987년 9월 1일 창간 월간 새보람 제255호 2014년 5·6월 25일

회 장·발행인/김광환 편집장/오창석 기자/김금주 발행처/(사)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주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로 22 이룸센터 3층

등록번호/영등포 라 0028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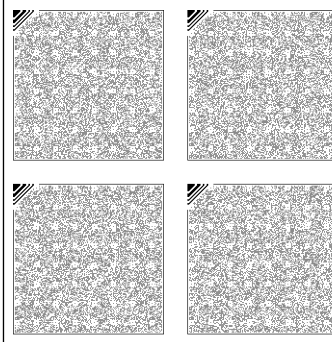
홈페이지 <http://www.kappd.or.kr> E-mail : [kappd@kappd.or.kr](mailto:kappd@kappd.or.kr)

대표전화:(02)796-4280 FAX:(02)796-4281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소리로 읽는 새보람



# 시급한 장애인 선거권 보장 법률 개정

## 첨단 투표 장비 · 정확한 정보 제공 필요성 제기

장애인의 선거권 보장을 위한 관련 법률 개정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한국장애인인권포럼이 5월 22일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개최한 ‘장애인 정치참여를 위한 선거권보장방안 토론회’에서 전문가들은 선진국에 비해 국내 선거법이 장애인의 기본권을 보장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장애인인권포럼 장애인 정책모니터링센터 김의수 선임 연구원은 장애인 선거권 보장을 위해 고쳐야 할 국내 법 조항을 발표하고 개선 방향을 제시했다.

김 연구원은 “법조항 가운데 해묵은 차별 조항들이 존치 중인데 특히 공직선거법상 점자선거공보물 제작은 의무조항이 아니어서 제작 비율이 저조하다”며 “점자형 선거공보는 책자형 선거공보의 내용을 모두 포함하고 시각장애인의 점역정보 접근을 제한하지 않도록 제작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연구원은 또 “장애인 투표소 접근성 및 편의제공 보장을 위해서는 의무규정이 필요하며 편의제공 범위를 교통지원에만



5월 22일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열린 ‘장애인 정치참여를 위한 선거권 보장방안 토론회’.

한정할 것이 아니라 선거취약계층의 완전한 선거권 보장을 위해 포괄적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 윤삼호 정책위원은 미국의 선거 지원 시스템을 소개하며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장애인 첨단 투표 장비 도입의 필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윤 위원에 따르면 미국은 미국

선거지원법(HAVA)에 따라 장애인들에게 다양한 기술적 지원을 하고 있다.

캘리포니아주의 이슬레이트(eSlate) 기표대와 버몬트주의 휴대전화 단말기가 대표적이다.

이슬레이트 기표대는 휠체어 사용자를 위해 높이가 낮고 헤드폰, 입으로 조종할 수 있는 시프 앤 퍼프(sip and puff) 등 보조기구들이 부착되어 있는 것이 특징

이다.

캘리포니아주 산마테오 카운티에서는 장애인을 위해 모든 투표소에 이 기표대를 적어도 한 대 이상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휴대전화 단말기는 선거관리위원회의 공무원이 장기요양시설 등 부재자 투표를 많이 하는 곳에서 유권자의 신원을 파악한 후 그 자리에서 기표를 하도록 하는데 쓰인다.

윤 위원은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터치스크린 투표 장비와 인터넷 모바일 투표 장비를 개발해 둔 상태지만 공직선거에서는 활용하지 못하고 당내 경선 등에 사용하고 있다”며 “미국과 우리나라의 선거 문화가 달라 단순 비교하기는 어렵지만 우리나라도 손을 사용할 수 없는 중증장애인을 위해 일반 투표소에 터치스크린을 비치하면 대리인에 의한 투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 남용현 정책연구팀장은 독일의 사례를 예로 들며 선거와 관련한 정확한 정보 제공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남 팀장은 “독일에서는 장애인 정책과 관련된 각종 발간물을 제작할 때 기본형 자료 외에 지적장애인들도 이해할 수 있도록 쉬운 용어로 작성한 별도의 발간물을 제작해 보급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이를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사설

## 장애인 단체장의 긍정적 사명

사회적인 변화를 주도하고 해결의 주체로서 비영리단체의 역할과 기능이 새로이 조명되면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비영리단체의 리더십과 경영전략 및 시스템도 기업에 못지않게 주목받고 있다.

경영학자 피터 드러커(Peter Drucker)는 비영리단체의 경영자들에게 조직의 사명을 정의하고 목적 달성을 위한 전략을 수립하며 성과를 분석하고 평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비영리단체가 성공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단체의 ‘사명’과 관련된 사회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비영리단체의 사명과 성과는 공익성과 사회에 미치는 긍정적 변화에 직접

적으로 연결되기 때문이다.

또한 성과의 파급력을 높이고 사회적 신뢰축적에도 긍정적인 기여를 할 수 있도록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사회와의 의사소통에도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장애인단체는 장애인의 권익옹호와 사회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며 장애인의 권리보장과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정책과 제도를 건의해야 한다.

이는 장애인단체의 기본적인 사명이며, 장애인단체의 존재 이유이기도 하다.

그러나 장애인단체를 바라보는 사회적 시각은 그렇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일부 장애인단체나 단체를 빙자한

범죄자들로 인해 과거는 물론 현재까지도 각종 이권사업에 개입하여 물의를 일으키고, 장애인을 이용하여 각종 물품의 강매와 강제적인 후원 권유 등으로 장애인의 문제를 해결하고 긍정적 사회변화를 주도하는 비영리단체로서의 진정성에 대하여 사회적 의심을 떨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지역사회의 긍정적 변화를 선도하고 장애인의 문제를 해결하여 지역장애인 복지발전을 이끄는 활동가로서 장애인단체의 긍정적 변화와 사명을 기대하며 장애인단체장의 새로운 역할을 제안한다.

먼저 장애인단체장은 지역장애인의 대변자로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과 제도 마련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야 함은 물론 지역사회에서 장애인의 권익신장에 앞장서고 공개토론을 통한 장애인의 문제해결에 역량을 발휘하여 장애인에 대한 사회인식개선을 위한 활동에 집중해야 한다.

또한 지역장애인의 기본적인 욕구와 실태를 조사·파악하고 장애인의 역량강화를 위한 정보와 서비스의 제공 및 의식개혁을 위한 교육도 마련해주어야 한다.

그럼으로써 주체적 당사자로서의 장애인 인재양성과 전문성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이외에도 지역사회 내 유관단체 및 기관과의 연계기능을 강화하고 단체의 재정 자립도를 높여 단체운영의 안정을 도모해야 할 것이다.

# 갈 곳 없는 장애인 인권 침해 피해자

## 장애인 쉼터 6곳 뿐...남성 위한 곳 無

## 쉼터 전문 인력 확보 및 예산 확충 필요

장애인 인권침해 피해자를 위한 쉼터 마련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특히 남성 장애인을 위한 쉼터는 전무하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지적이다.

장애인권침해예방센터에 따르면 전국에 여성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은 24곳, 가정폭력 쉼터는 68곳이지만 이 가운데 장애인을 위한 곳은 6곳뿐이다. 하지만 이마저도 여성을 위한 곳으로 남성이 갈 수 있는 곳은 찾아볼 수 없다.

5월 15일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열린 '장애인 인권 침해 피해자 쉼터 마련을 위한 토론회'에서 경기도장애인인권센터 안은자 팀장은 "실제로 한 정신장애인 남성은 아버지와 사실혼 관계에 있는 어머니의 폭력으로 집을 나와 노숙생활을 하던 중 간질로 쓰러져 병원에 입원했는데 남성 입소가 가능한 쉼터가 없어 퇴원 후 머물 곳을 찾을 수 없는 상



5월 15일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열린 '장애인 인권 침해 피해자 쉼터 마련을 위한 토론회'.

태"라고 전했다.

이어 "인권 침해를 당하는 장애인 수에 비해 장애인 인권 침해 피해자를 위한 쉼터는 턱없이 부족하고 장애인 쉼터도 신변처리가 혼자 불가능한 장애인은 입소가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토론회에서는 장애인 인권 침해 피해자 쉼터의 바람직한 운영방안에 대한 논의도 이루어졌다.

관계자들은 쉼터가 트라우마를 겪는 피해자의 치료와 자활을 위한 기능을 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안 팀장은 "쉼터가 피해자들을 위한 치유·회복 프로그램과 의료·법률·학교지원 등 사회복지서비스를 운영해 피해자들이 주체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박

김영희 사무국장도 "피해자들은 정서적 안정과 심리적 치료가 필요하다"며 "쉼터는 피해자들의 치유와 자립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쉼터를 위한 전문인력 확보와 예산 확충도 중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지적장애인생활시설 도란도란의 황상연 원장은 "예전에 피해자에게 소송 지원을 해야 했지만 변호사 등 전문가가 없어 피해자를 위해 해줄 수 있는 것은 법원까지 동행해 주는 것뿐이었다"며 "쉼터에서 사회복지사가 할 수 없는 부분을 해줄 수 있는 영역별 전문가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홍창표 홍보협력팀 팀장은 "전국 아동보호 전문기관이 운영하는 대부분의 그룹홈은 운영비로 공과금을 내기에도 부족한 실정"이라며 "최소한의 운영비라도 확보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 정신병원 '회전문' 입원 대책 마련 시급

### 계속입원 심사 무시한 병원장 검찰 고발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정신병원 계속입원에 대한 심사과정을 무시하고 환자를 불법적으로 입원시킨 병원장 2명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5월 22일 밝혔다.

'정신보건법'은 환자가 비자발적으로 정신병원에 입원한 경우 6개월마다 계속입원 여부에 대한 심사를 받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해당 병원은 심사를 피하기 위해 6개월마다 환자를 다른 병원으로 이송해 계속 입원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인권위에 따르면 A씨(54세)는 지난 2012년 X병원에 입원한 후 6개월이 지나 퇴원하던 중 병원 문 앞에서 Y병원으로 이송돼 계

속해서 병원에 입원하고 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접수했다.

인권위 조사결과 A씨는 X병원에 172일, Y병원에 179일 동안 입원한 뒤 또 다시 Z병원으로 이송된 것으로 밝혀졌다.

인권위는 그동안 6개월마다 병원을 옮기는 이른바 '회전문' 입원에 대해 여러 차례 해당 병원에 시정조치하고 관할 시·군·구청에 재발방지대책 마련을 권고해왔다.

그러나 여전히 '회전문' 입원이 계속되자 인권위는 해당 병원을 고발조치하고 보건복지부에 계속입원 심사를 회피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을 마련하도록 했다.

## "장애인 콜택시 유료도로 통행료 할인 적용해야"

###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 관련 법 개정 건의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은 장애인 콜택시와 장애인 심부름센터 차량이 유료도로 통행료 할인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할 것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했다고 6월 16일 밝혔다.

현재 장애인은 자가 차량으로 고속도로를 이용할 경우 유료도로법에 따라 통행료의 50%를 할인받을 수 있다.

그러나 중증장애인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는 장애인 콜택시와 장애인 심부름센터 차량은 할인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이들 차량이 영업용 차량이라는 이유로 유료도로 장애인 할인 적용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 것이다.

이에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은 국토교통부에 장애인 특별교통수단 지정차량과 장애인 심부름센터 차량을 이용하는 장애인이 고속도로 등의 유료도로 이용시 통행료 할인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근거법인 유료도로법 제8조 제1항 제3호를 개정할 것을 요구했다.

지난 2011년 장애인 실태조사 결과 장애인 차량을 소유하고 있는 중증장애인 가구 가운데 장애인 본인이 직접 차량을 운전하는 경우는 17%로 자가 운전율이 매우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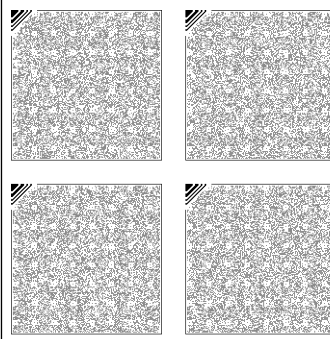
특히 이동을 위해 전동휠체

어나 전동스쿠터를 이용하는 장애인이나 운전면허 취득이 쉽지 않은 시각장애인은 자가 차량 이용이 불가능한 실정이다.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은 "장애인 콜택시와 장애인 심부름센터 차량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위해 도입된 특별교통수단이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성을 가지고 운영하는 차량"이라며 "장애인 콜택시나 장애인 심부름센터 차량을 이용해 고속도로 등의 유료도로를 이용하는 장애인에게 자가용 차량을 이용하는 경우와 동일한 할인 혜택을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 소리로 읽는 새보람



## [기획] 있으나 마나한 장애인 보장구 건강보험 급여 만만치 않은 본인부담금...현실성 없는 내구연한

### 보장구 때문에 적금에 빚까지

장애인 보장구 건강보험 급여 제도가 장애인들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면서 유명무실한 제도로 전락하고 있다.

장애인 보장구의 가격은 해마다 오르고 있지만 보건복지부가 10년 전 고시한 장애인 보장구 건강보험 급여 기준금액은 그대로이기 때문이다.

지난 2005년 보건복지부는 장애인 보장구 건강보험 급여 기준금액을 전동휠체어 209만원, 전동스쿠터 167만원, 수동휠체어 48만원으로 정하고 장애인에게는 이 금액의 80%, 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100%를 지원하고 있다.

장애인 당사자들은 10년째 변동 없는 장애인 보장구 건강보험 급여 제도는 현실과 괴리가 크다고 답답함을 호소했다.

뇌병변장애인 A씨는 전동휠체어 구매를 위해 적금을 들었다. A씨에게 필요했던 비용은 총 600만원. 전동휠체어 가격 500만원에 손을 사용할 수 없어 전동휠체어를 발로 운전할 수 있도록 하는 개조비 100만원이 포함된 금액이다. 하지만 A씨는 187만원밖에 지원받지 못했다.

척수장애인 B씨는 수동휠체어를 구매하기 위해 빚까지 졌다. B씨가 구매하려던 수동휠체어는 무려 400만원. 하지만 B씨

가 지원받을 수 있는 금액은 고작 38만원이었다.

육창예방과 골반교정에 도움이 되는 수동휠체어가 필요했던 B씨는 가격이 부담스러워 고민이 됐지만 건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구매를 결정했다.

### 짚은 고장으로 장애인 부담늘어

장애인 보장구 내구연한에 대한 불만도 끊이지 않고 있다.

현재 장애인 보장구의 내구연한은 전동휠체어 6년, 전동스쿠터 6년, 수동휠체어 5년이다. 전동휠체어나 전동스쿠터용 전지의 내구연한은 1년 6개월이다.

그러나 장애인들은 장애인 보장구 내구연한이 현실성이 없다고 토로했다.

지체장애인 C씨는 “전동휠체어를 구입한지 4년이 지나면 타이어, 컨트롤러, 모터 등 여기저기 고장이 자주 난다”며 “고장이 잦다보니 외출시 불안한 것이 사실”이라고 밝혔다.

뇌병변장애인 D씨는 “소모품인 전지의 경우 내구연한이 1년 6개월이지만 중고 배터리가 돌아다니는지 교체해 해도 배터리가 1년을 넘기지 못하는 경우도 허다하다”며 “실제로 장애인들의 장애인 보장구 사용 현황을 잘 파악해서 제도 개선에 반영해줬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전했다.

장애인보장구 수리센터에서 일하고 있는 E씨는 “장애인 보장구 수리를 위해 찾아오는 장애인들 가운데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경우가 많은데 부품 교체가 없는 고장의 경우는 무료 수리를 해주지만 어쩔 수 없이 부품을 교체해야 하는 경우 장애인들의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 실태조사에서도 문제점 드러나

장애인 보장구 건강보험 급여 제도의 문제점은 장애인보장구 건강보험급여현실화추진연대(이하 장애인보장구연대)가 지난 4월 보장구 사용 장애인 88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장애인 보장구 건강보험 급여 실태조사’에서도 여실히 드러난다.

실태조사 결과 응답자들이 주로 이용하는 보장구는 전동휠체어 37.8%, 수동휠체어 31.0%, 전동스쿠터 31.5% 순으로 나타났다.

장애등급은 1급이 63.5%, 2급이 21.9%로 중증장애인이 전체의 85.4%를 차지했다. 직업은 무직이 54.2%로 가장 많았고 월 평균 소득은 50만원 미만인 37.8%, 5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인 30.8%였다.

이는 보장구를 이용하는 장애인은 주로 중증장애인이며 전반적으로 소득 수준이 낮음을 의미

한다.

그러나 보장구 구입시 200만원 이상의 본인부담금을 내는 장애인은 무려 전동휠체어 27.8%, 수동휠체어 42.7%, 전동스쿠터 3.8%였다.

250만원 이상의 본인부담금을 내는 장애인도 전동휠체어 16.5%, 수동휠체어 36.4%로 나타났다.

보장구의 사용기간은 3년 이상 5년 미만인 33.7%, 1년 이상 3년 미만인 23.3%로 조사됐다. 현재 보장구 내구연한에 비해 실제 사용 기간은 짧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실제로 응답자의 59%는 ‘보장구 내구연한이 적절하지 않다’고 응답했고 이 가운데 46.9%는 ‘보장구 내구연한은 평균 3년이 적당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대부분 보장구가 3년이 지나며 잔고장과 마모가 심해져 수리비가 많이 든다’, ‘체형이 변형되어 보장구가 몸에 맞지 않는다’ 등의 답변이 이어졌다.

### 전문가들 “제도 현실화 필요”

전문가들은 장애인 보장구 건강보험 급여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같이 하고 제도 개선 현실화 방안을 제시했다.

5월 8일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열린 ‘장애인 보장구 건강보험 급여 현실화 방안 마련 토론회’에서 목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김동기 교수는 “2005년 보장구 급여 기준액과 내구연한이 10년이 지난 지금까지 동일한 것은 큰 문제”라며 “이는 문제의 차원을 떠나 일종의 직무유기라 해도 틀리지 않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제도의 현실화를 위해서는 일차적으로 면밀한 실태조사와 장애인 당사자 참여를 기반으로 한 정책연구를 실시하고 이를 토대로 급여기준액, 내구연한, 대상품목 등의 확대를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장애인보장구연대 황백남 소장은 “보장구는 고착화된 장애의 치료나 재활을 돕기 위한 것이 아닌 장애인의 생활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 장애 유형과 특성, 생활환경에 부합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척수장애인협회 이찬우 사무총장은 “독일에서는 장애인 건강 유지를 통한 의료비 절감을 위해 장애인에게 생활용, 운동용, 사워용 등 3개의 휠체어를 준다고 들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민 건강을 위해 엄청난 예산을 쓰면서도 장애인에게는 그렇지 못하다”며 “예방차원의 보장구 급여 체계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울산보조기구서비스지원센터 김종훈 센터장은 “보조기구 사용자들에게 보조기구 지원과 더불어 중요한 것은 유지·관리 서비스이지만 국내에는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만 지원되고 있다”며 “유지·관리 서비스센터가 설치되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편 토론회에 참석한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서정현 사무관은 “장애인 보장구 급여 현실화 필요성에 충분히 공감하고 있다”며 “앞으로 보장구에 대한 연구를 실시하고 의견을 수렴해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공공기관 중증장애인생산물 구매 실적 저조

## 0.72%로 법정구매목표비율 1%에 못 미쳐

공공기관의 중증장애인생산물 구매 비율이 여전히 법정구매 목표비율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공공기관의 총 중증장애인생산물 구매 금액은 2958억원으로 2012년 2526억원보다 17.1% 증가했다.

총 구매액 대비 중증장애인생산물 구매비율은 0.72%로 전년 대비 0.49% 증가했으나 이는 법정구매목표비율 1%에 못 미치는 수치다.

기관별로 살펴보면 중증장애인생산물 우선구매 실적이 국가기관 0.62%, 교육청 0.68%, 지방자치단체 0.71%, 공기업 0.76%로 모두 1% 이하다.

특히 국가기관과 교육청의 중증장애인생산물 우선구매 실적이 전년대 비교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앞으로 적극적인 중증장애인생산물 구매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 분	'12년	'13년		증감률 (B/A)
	구매액(A)	구매액(B)	총 구매액 대비 비율	
계	2,526	2,958	0.72	17.1
국가기관	532	402	0.62	▲ 24.4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포함)	528	844	0.71	59.8
교육청	374	368	0.68	▲ 1.6
공기업	1,092	1,344	0.76	23.0

(단위 : 억원, %)

2013년도 기관종류별 중증장애인생산물 우선구매 실적. <자료 : 보건복지부>

국가기관 가운데서도 특히 방위사업청과 경찰청이 100점 만점에 21점으로 최하위 점수를 받았다.

다음으로 기획재정부(26점),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33점), 안전행정부(35점), 공정거래위

원회(39점), 국가보훈처(39점), 헌법재판소(44점), 관세청(51점), 기상청(53점)이 뒤를 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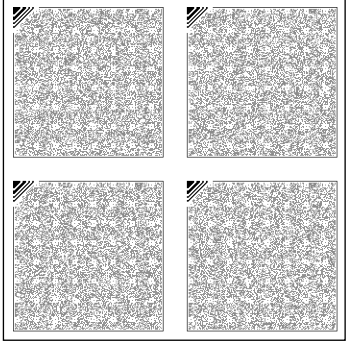
교육청의 경우 전라남도 교육청이 18점으로 가장 낮은 점수를 받았다.

대전광역시교육청(28점), 광주

광역시교육청(30점), 세종시교육청(32점), 울산시교육청(39점), 경상남도교육청(43점), 부산시교육청(47점), 대구시교육청(51점), 경상북도교육청(53점)도 하위기관에 이름을 올렸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5월 15일

### 소리로 읽는 새보람



중증장애인생산물 우선구매촉진위원회를 열고 올해 중증장애인생산물 우선구매 촉진계획을 의결했다.

올해 933개 공공기관에서 구매할 중증장애인생산물 총 구매액은 4273억원으로 지난해 총 구매액 2958억보다 44.5% 증가한 규모다.

보건복지부는 공공기관의 중증장애인생산물 구매를 독려하기 위해 올해부터 구매실적 우수, 미흡기관의 명단공표 범위를 확대하고 구매우수기관에 대한 표창과 구매담당자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올해 하반기부터는 중증장애인생산물 정보를 제공하고 공공기관의 구매실적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중증장애인생산물 유통정보시스템을 시범 운용한다.

### 칼럼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조직지원부 김혁성 과장

## 소통(疏通)

혹자는 근래 가장 듣기 싫은 단어 중 하나로 '소통'이란 말을 꼽는다. 그만큼 '소통'이란 단어가 많은 사람들에게 의해 자주 회자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소통을 한자로 표현하면 트일 소(疏), 통할 통(通), 즉 '막힘없이 트여서 서로 통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영어로는 communication, 즉 전달·통신 등의 의미로 주로 쓰인다.

최근 '독서를 할 때도 소통을 해야 제대로 독서를 하는 것이다'라는 글을 읽은 적이 있다.

저자가 쓴 책을 보고 그냥 고개만 끄덕이며 책의 내용을 수용하기 보다는 저자와 직접 대화하듯 책을 읽어야 비로소 완전한 소통, 완전한 독서라는 것이다.

참 인상적인 내용이었다. 과거에 우리는 주입식으로 교육을 받아온 탓인지 선생님의 말은 무조건 옳고, 학식 또는 식견이 있는 저자들이 쓴 책에 대해서는 더 더욱 반론을 제기할 엄두조차 내지 못했던 것 같다.

책도 하나의 인간과의 대화라고 보는 견지인 것 같다. 어떻게 생각해 보면 책도 사람의 생각을 잘 정리해 예쁘게 포장해 내 놓은 '정리된 한 사람의 긴 사고의 묶음'이다.

하지만 책에는 대화의 화자만 있고 서로 의견교환을 통해 대화의 질을 업그레이드할 대상이 없기 때문에 나온 얘기인 듯하다.

인터넷을 보면 상당수의 사람들이 상호 소통 없이 자신의 주장만을 내세우거나 직접 얼굴을 보지 않고 글로만

대화하는 공간이라 그런지 예의를 지키지 않는 사람도 종종 볼 수 있다.

이처럼 대화의 에티켓을 지키지 않는 것도 소통의 문제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소통한다는 것이 모든 사람의 의견이 같아야만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의견이 다름을 서로 존중하고 인정하며 토론과정에서 비교 우위를 판단해 자기의 좋은 점은 살리고 상대방의 의견 가운데 더 좋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받아들이면 되는 것이다.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우리는 살면서 처음들을 때는 아닌 듯 싶었지만 조금 시간이 흐른 뒤 언젠가 불현듯 그것이 맞았구나 하고 무릎을 칠 때도 많지 않은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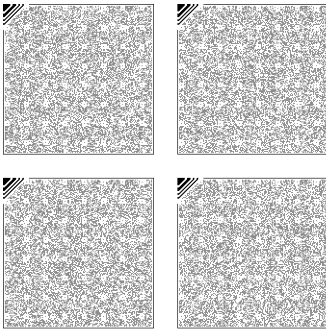
인간이 완전하지 않음은 누구나 인정할 것이다. 다만 대화나 조직 내 토론 등에서 지기 싫어하는 이기적인 본성 때문에 우리는 남의 의견이 더 좋다하더라도 때로는 솔직하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다.

이것은 자기개발과 훈련을 통해 가능하다고 본다. 소통을 잘 하기 위한 노력은 곧 개인의 능력을 꾸준히 업그레이드시켜 나가는 하나의 좋은 방법이 아닐까.



Voiceye Saeboram News

소리로 읽는 새보람



# ‘제13회 광주기능장애인한마음대회’ 성료

## 기능경기대회 출전 선수들의 화합의 장



‘제13회 광주기능장애인한마음대회’에서 광주지장협 이재홍 협회장과 체력훈련 입상팀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광주광역시지체장애인협회(협회장 이재홍, 이하 광주지장협)가 광주장애인기능경기대회를 앞두고 출전 선수들의 화합의 장을 마련했다.

광주지장협은 6월 13일 광주 적십자청소년수련원 체육관에서 ‘제13회 광주기능장애인한마음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대회는 세미나, 체력훈련, 노래자랑 등으로 진행됐다.

세미나에서는 기능경기대회에 대한 정보제공이 이루어졌으며 직종별 교육도 실시됐다.

체력훈련에서는 좌식배구, 휠체어 릴레이, 피구 경기가 펼쳐졌고 우승은 광주지장협 광산구 지회가 차지했다.

노래자랑에서는 경품추첨이 이어져 대회 참가자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했다.

광주지장협 이재홍 협회장은 “올해로 13회를 맞은 ‘광주기능장애인한마음대회’는 기능경기대회 출전 선수들에게 자신감을 심어 주기 위한 행사로 지역 내 우수한 기능 장애인을 발굴하고 육성하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광주 지역 장애인들이 함께하며 서로 화합하고 소통하는 자리이기도 하다”고 덧붙였다.

# ‘세종천사봉사단’ 창립

## 세종시 장애인 · 소외계층 지원

세종특별자치시지체장애인협회(협회장 정금중, 이하 세종지장협)가 세종시 지체장애인을 비롯한 소외계층 지원을 위한 ‘세종천사봉사단’을 창립했다.

세종지장협은 5월 9일 세종시 민회관에서 지역 장애인 단체장과 후원단체 임직원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세종천사봉사단’ 발대식을 가졌다.

세종지장협은 이날 ‘세종천사봉사단’ 단장과 자문위원에 위촉장을 수여했다.

‘세종천사봉사단’은 앞으로 장애인과 비장애인 어울림 공동체 사회 실현과 장애인 자립생활 기반 마련을 위한 활동을 펼치게 된다.



‘세종천사봉사단’ 발대식이 열리고 있다.

세종지장협 관계자는 “세종천사봉사단은 모든 이들에게 활짝 열려있는 봉사단”이라며 “앞으로 장애인과 소외계층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전남지장협, 장애인의 날 기념식 개최

## 부대행사 세월호 희생자 추모식으로 대체

전라남도지체장애인협회(협회장 박경철, 이하 전남지장협)가 지난 4월 23일 개최 예정이었으나 세월호 참사로 연기해온 ‘제34회 장애인의 날 행사’를 5월 30일 장흥실내체육관에서 열었다.

전남지장협은 세월호 참사로 인한 국민적 아픔을 함께하는 뜻에서 ‘제34회 장애인의 날’ 행사를 연기한바 있다.

올해 행사는 엄숙한 분위기 속에 장애인의 날 기념식과 세월호 희생자 추모식으로 치러졌다.

당초 2부 행사로 열릴 예정이던 노래자랑 등 부대행사는 모두 취소됐다.

이날 장애인의 날 기념식에서는 전남 장애인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힘써온 복지 유공자에 대한 표창장 수여식도 진행됐다.

# 제주지장협, 차량이동 교육 실시

## 도로교통법규 · 차량 관리 요령 강의

제주특별자치도지체장애인협회(협회장 부형종, 이하 제주지장협)는 4월 30일 탐라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차량이동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에는 제주지장협 회원을 비롯한 장애인복지 관련 시

설 이동지원 담당자 70여명이 참가했다.

교육은 도로교통공단 제주지부 현병주 교육홍보부장의 ‘도로교통법규’, 제주자동차검사소 이상호 과장의 ‘차량 구조 및 차량 관리 요령’에 대한 강의로 이

루어졌다.

제주지장협 부형종 협회장은 “이번 교육을 계기로 안전운전이 생활화 됐으면 한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교육을 지속적으로 이어나가겠다”고 말했다.



도로교통공단 제주지부 현병주 교육홍보부장이 ‘도로교통법규’ 강의를 하고 있다.

# 포항시 장애인 복지택시 전달식

## 경북지장협 포항시지회, “장애인에 보다 나은 교통편의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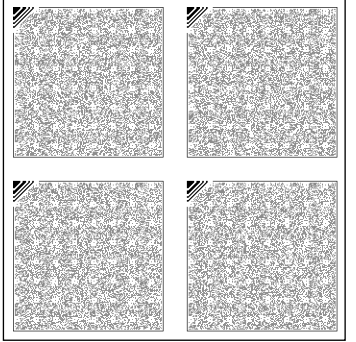
포항시 관계자와 경북지장협 포항시지회 이용성 지회장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지난 2004년부터 포항시의 장애인 복지택시 사업을 위탁운영하고 있는 경상북도지체장애인협회 포항시지회(지회장 이용성, 이하 경북지장협 포항시지회)가 지역 장애인들에게 한 층 나아진 교통편의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경북지장협 포항시지회는 5월 21일 포항시로부터 휠체어 탑승이 가능한 장애인 복지택시 한 대를 전달받았다.

포항시 최규석 복지환경국장은 “노후 된 기존 차량 이용자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휠체어 탑승 저상 램프 승합차량을 구입해 경북지장협 포항시지회에 전달하게 됐

소리로 읽는 새보람



다”고 밝혔다.

경북지장협 포항시지회 이용성 지회장은 “지원받은 차량을 통해 거동이 불편한 지역 중증장애인들의 발이 되고 희망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북지장협 포항시지회가 운영하는 장애인 복지택시 요금은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시내 무료, 읍·면 지역 구간별 실비 최고 4000원에 이용할 수 있다.

그 외 장애인들은 시내 1000원, 읍·면 지역 구간별 실비 최고 5000원에 이용 가능하다.

## 경북지장협 문경시지회 후원회장 위촉 나이스밀 주대중 대표이사, 500만원 쾌척



경북지장협 문경시지회 박홍진 지회장이 나이스밀 주대중 대표이사에게 후원회장 위촉패를 전달하고 있다.

경상북도지체장애인협회 문경시지회(지회장 박홍진, 이하 경북지장협 문경시지회)가 나이스밀 주대중 대표이사를 후원회장으로 위촉했다.

경북지장협 문경시지회는 5월 14일 후원회 운영위원 및 임원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주대중 후원회장에게 위촉패를 전달했다.

주대중 후원회장은 “앞으로 문경 지역 지체장애인들의 편의증진과 복지향상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경북지장협 문경시지회 박홍진 지회장은 “항상 장애인들에게 관심을 가져주는 주대중 후원회장에게 감사드리며 의지하기 보다는 자립할 수 있고 더불어 나눌 수 있는 지회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주대중 후원회장은 이날 지역 장애인을 위해 500만원의 후원금을 쾌척했다.

## 부산 장애인 편의시설 검사원 교육 실시 담당 공무원 및 검사원 40여명 참가

지체장애인편의시설부산지원센터(센터장 김광표, 이하 부산편의센터)는 5월 29일 부산장애인종합회관 대회의실에서 부산광역시 장애인 편의시설 검사원 실무교육을 실시했다.

부산편의센터는 이날 부산시·군·구 공무원과 편의시설 검사원 40명을 대상으로 편의시설 관련법에 대해 강의하고 다양한 편의시설 설치 사례를 소개했다.



부산편의센터 김광표 센터장이 인사말을 전하고 있다.

한편 이날 부산편의센터 김광표 센터장은 간담회를 통해 부산

지역 편의시설의 발전 방향과 건의사항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

## 안덕면 장애인 한마음 큰잔치 열려 장애인 복지 유공자에 표창장 수여



‘안덕면 장애인 한마음 큰잔치’ 행사가 열리고 있다.

경상북도지체장애인협회 청송군지회(지회장 조승철, 이하

경북지장협 청송군지회)가 안덕면분회와 함께 4월 23일 ‘안덕

면 장애인 한마음 큰잔치 행사’를 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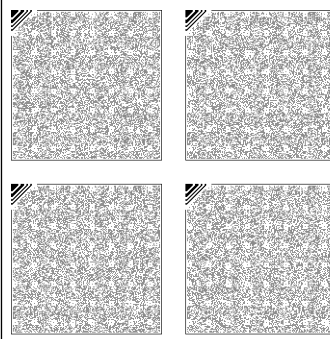
세월호 참사로 간소하게 치러진 이번 행사는 장애인 자녀에 대한 장학금 전달식, 장애인 복지 유공자에 대한 표창장 수여식으로 진행됐다.

경북지장협 청송군지회 조승철 지회장은 “앞으로 장애인들이 서로 화합할 수 있는 자리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경북지장협 청송군지회 안덕면분회 이이용 분회장도 “소외되어 살아가는 장애인들을 위해 열심히 뛰겠다”고 전했다.



## 소리로 읽는 새보람



# 북부장복 · 벽산사회봉사단, 봉사활동 펼쳐

## 중증장애인 가정 방문...환경 개선 작업



북부장복과 벽산사회봉사단이 장애인 가정을 방문해 선풍기를 설치하고 있다.

서울시립북부장장애인종합복지관(관장 손영호, 이하 북부장복)이 벽산엔지니어링 임직원으로 구성된 벽산사회봉사단과 장애인 가정 환경개선에 나섰다.

북부장복과 벽산사회봉사단은 5월 24일 노원구 일대 중증장애인 가정을 방문해 이들이 직접 청소하기 힘든 창문, 싱크대, 베란다 등에 대한 청소 작업을 벌였다.

또한 장애인들이 무더운 여름을 시원하게 보낼 수 있도록 선풍기를 설치하고 독거 중증장애인들의 말벗도우미 활동도 펼쳤다.

노원구 중계동에 거주하는 한

중증장애인은 “봉사자들 덕분에 시원하고 편안한 여름을 보낼 수 있게 됐다”며 “따뜻한 관심에 감사하다”고 전했다.

한편 벽산사회봉사단은 지난 2008년 북부장복과 사회공헌협약을 맺고 장애인 복지 발전을 위한 다양한 봉사활동에 앞장서고 있다.

특히 올해는 ‘장애인과 함께 사는 따뜻한 세상 만들기’를 주제로 봉사활동을 진행할 계획이다.

# 의정부장복, 나눔 실천에 앞장

## ‘자장면 무료 나눔 행사’ 실시

의정부시장장애인종합복지관(관장 김인숙, 이하 의정부장복)이 지역 장애인과 주민들을 위한 나눔을 실천했다.

의정부장복은 서울시 도봉구에 위치한 중화요리 전문점 ‘락궁’과 연계해 5월 22일 복지관에서 ‘자장면 무료 나눔 행사’를

열었다.

중화요리 전문점 ‘락궁’ 서재덕 대표는 “장애인들을 위해 나눔을 실천하게 되어 뿌듯하다”며 “하반기에도 의정부장복 이용 고객들을 위해 행사를 또 진행하고 싶다”는 뜻을 밝혔다.

의정부장복 관계자는 “앞으로 지역 사회와 함께할 수 있는 자리를 더욱 자주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나눔행사 참여에 대한 문의는 의정부장복 지역복지팀(☎031-850-5380)으로 하면 된다.



의정부장복이 5월 22일 ‘자장면 무료 나눔 행사’를 실시했다.

# 괴산장복, 장애인 주거환경 개선

## 중원대학교 자원봉사단이 지원

괴산군장애인복지관(관장 정효선, 이하 괴산장복)이 5월 세 차례에 걸쳐 장애인들의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 작업을 벌였다.

괴산장복은 중원대학교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장애인 가정을 방문해 낡은 벽지와 장판 교체, 청소, 잡초제거 등을 실시했다.

이번 장애인 주거환경 개선 작업에 참여한 자원봉사자는 “장애인들의 주거 환경이 생각했던 것 보다 더 열악한 것 같다”며 “앞으로 많은 분들이 지속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전했다.



괴산장복 직원과 중원대학교 자원봉사단원이 장애인 가정을 방문해 벽지 교체 작업을 벌이고 있다.

괴산장복 정효선 관장은 “장애인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앞으로도 계속 실시할 계획”이라

며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곳이 있으면 언제든지 달려갈 것”이라고 밝혔다.

# 성남장복, 장애인 고용 캠페인 벌여

## 사업주 상담 · 장애 인식 개선 이벤트 진행



성남장복은 5월 23일 SKn테크노파크에서 장애인 고용 캠페인을 실시했다.

성남시장장애인종합복지관(관장 광상구, 이하 성남장복)은 5월 23일 400여개의 사업체가 밀집되어 있는 SKn테크노파크에서 장애인 고용 캠페인을 벌였다.

성남장복은 이날 장애인 고용기회 확대를 위해 사업주들

을 대상으로 장애인 직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장애인 구인 상담을 진행했다.

또한 장애 인식 개선을 위해 장애 관련 포스터를 전시하고 영상을 상영했다. 장애에 대한 퀴즈를 풀어보는 시간도 마련했다.

# 유성장복, 장애인 IT 전문 인력 양성

## 9월까지 사무마스터자격증 취득 과정 운영



유성장복 윤석연 관장이 '장애인 IT 전문 인력 양성 교육' 개강식에서 인사말을 전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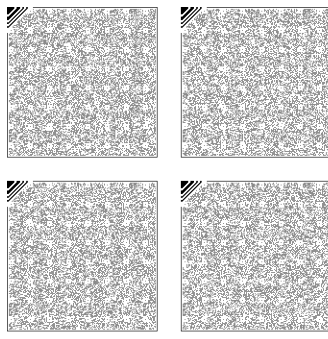
유성구장애인종합복지관(관장 윤석연, 이하 유성장복)이 '장애인 IT 전문 인력 양성 사업'을 운영한다.

'장애인 IT 전문 인력 양성 사업'은 장애인을 대상으로 IT 교육을 실시하고 취업 연계, 취업 후 적응 지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유성장복은 5월 7일 복지관에서 '장애인 IT 전문 인력 양성 교육' 개강식을 갖고 본격적인 교육에 들어갔다.

교육은 사무마스터자격증 취득과정으로 5월부터 9월까지 5

### 소리로 읽는 새보람



개월 동안 진행되며 수강료, 교재비 모두 무료다.

유성장복 윤석연 관장은 “‘장애인 IT 전문 인력 양성 교육’이 취업이 어려운 장애인들의 취업 기회의 폭을 넓히고 장애인들이 사회 구성원으로 정착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사업은 행정안전부 산하 한국정보화진흥원이 지원한다.

## 김천장복, '신나는 예술여행' 사업 실시

### '연희집단 the 광대' 초청 공연 진행

김천시장애인종합복지관(관장 박선하, 이하 김천장복)이 지역 장애인들에게 문화·예술 활동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신나는 예술여행'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김천장복은 5월 28일 '연희집단 the 광대'를 초청해 풍물공연

을 열었다.

이날 '연희집단 the 광대'는 사물놀이, 사자놀이, 버나놀이 등 다양한 퍼포먼스를 선보였다.

공연 후에는 김천신협나눔봉사단이 장애인들을 위한 나눔밥상을 준비하기도 했다.

김천신협봉사단은 매월 김천

장복 이용고객과 지역 장애인들을 위해 자원봉사 활동을 펼치고 있다.

김천장복 관계자는 “평소 문화, 예술 공연을 접할 기회가 적은 지역 장애인들을 위해 앞으로 다양한 즐길거리와 볼거리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연희집단 the 광대'가 풍물공연을 펼치고 있다.

## 문경장복, 어버이날 행사 열어

### 장애인에 식사 제공...카네이션 전달



문경장복이 대구은행 문경지점 후원으로 어버이날 행사를 열었다.

문경시장애인종합복지관(관장 박종훈, 이하 문경장복)이 대

구은행 문경지점의 후원으로 5월 8일 지역 장애인 200여명을

대상으로 '어버이날 이웃사랑 행복밥상 나눔' 행사를 열었다.

이날 대구은행 문경지점 임직원들은 식당 안내와 배식 등 봉사활동에 참여하며 지역 장애인들과 소통하기 위해 노력했다.

대구은행 문경지점 관계자는 “장애인과 함께 더불어 사는 지역사회 조성을 위해 노력하는 은행이 될 것”을 약속했다.

한편 대구은행 문경지점은 문경장복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에게 카네이션을 달아주는 특별한 행사도 함께 진행해 눈길을 끌었다.

## 달성장복·논공중학교, MOU체결

### 지역 장애인과 학생 지원 위해 협력

달성군장애인복지관(관장 정우선, 이하 달성장복)이 논공중학교와 5월 8일 지역 장애인과 학생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달성장복과 논공중학교는 교육 공동체를 구성해 지역 장애인과 학생들에게 다양한 교육 및 여가활동 프로그램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한 학부모 참여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지역 독거 장애인에게 밀반찬을 지원할 계획이다.

달성장복 정우선 관장은



달성장복과 논공중학교 관계자들이 업무협약 체결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지역 장애인과 학생들이 함께 어우러져 살아갈 수 있는 사회 분위기가 조성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 남부장복, 차량 무상점검 서비스 제공

## 지역 장애인의 안전한 이동편의 지원



남부장복이 5월 27일 차량 무상점검 서비스를 실시했다.

충청남도남부장장애인종합복지관(관장 임대혁, 이하 남부장복)이 5월 27일 복지관 주차장에서 차량 무상 점검 서비스를 실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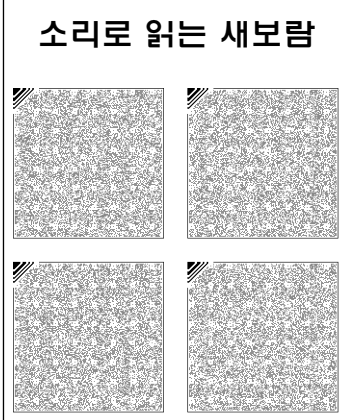
남부장복은 (주)현대자동차 공주 지점과 연계해 지역 장애인들에게 엔진오일 · 와이퍼블레이드 · 전 구 · 워셔액 점검 및 보충, 실내 향균 탈취 등의 서비스를 제공했다.

교통법규 위반시 발생할 수 있는 사고 상황에 대한 정보가 담긴 전단 지를 배포하는 등 교통법규 준수에 대한 홍보 활동도 펼쳤다.

남부장복은 장애인들의 안전한

이동편의 지원을 위해 차량 무상점 검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시행해 나 갈 계획이다.

남부장복 관계자는 “경제적 어려 움이나 차량에 대한 지식 부족으로 차량 점검을 받지 못하거나 방치하 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분들을 위해 이번 차량 무상점검 서비스를 진행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 아산 장애 아동과 함께하는 현장학습

## 적응력 및 대인관계 능력 향상에 기여

아산시장애인복지관(관장 이창호, 이하 아산장복)은 장애 아동들의 새로운 환경에 대한 적응 력과 대인관계 능력 향상을 위해 현장학습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아산장복은 5월 16일 장애 아 동 24명과 함께 서울 영등포에 위치한 LG사이언스홀을 방문했

다.

이날 장애 아동들은 직접 다양 한 과학 실험에 참여하며 생활 속에 숨겨진 과학의 원리를 배우 는 시간을 가졌다.

아산장복 이창호 관장은 “현 장학습이 장애 아동들에게 즐거 운 추억으로 자리 잡길 바란다” 며 “앞으로도 장애 아동들이 다

양한 체험을 할 수 있도록 프로 그램 개발에 힘쓰겠다”고 밝혔 다.

한편 이번 현장학습에는 자원 봉사자 11명이 함께했으며 큰사 랑뽕굼터에서 장애 아동들을 위 해 간식을 후원했다. 아산장복 이용자 부모 모임에서도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LG사이언스홀을 방문한 아산장복 현장학습 프로그램 참가 아동들이 로봇청소 기를 이용해 축구게임을 하고 있다.

# 영천장복, 장애인 단체와 선진지 견학

## 역량 강화 사업 일환...포항장복 등 방문



영천 지역 장애인 단체 선진지 견학 참가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영천시장에인종합복지관(관 장 이제근, 이하 영천장복)이 장 애인 단체 역량강화 사업의 일환 으로 영천 지역 장애인 단체를 대상으로 선진지 견학을 실시했 다.

이번 선진지 견학에는 경상북 도지체장애인협회 영천시지회, 경상북도농아인협회 영천시지 부, 경상북도지적장애인협회 영

천시지부 임직원이 참여했다.

이들은 포항시장에인종합복 지관 카페 사업단 두 곳과 포스 코 휴먼스를 견학했다.

영천장복 이제근 관장은 “선 진지 견학을 통해 다양한 정보와 전문 지식을 습득하고 앞으로도 지역 장애인 단체와 지속적인 교 류의 장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 하겠다”고 전했다.

# 목포장복의 찾아가는 문화 서비스

## 극단 ‘갯돌’의 마당극 공연 열려



극단 ‘갯돌’의 ‘뽕파전’ 공연이 열리고 있다.

목포시장에인종합복지관 (관장 조문호, 이하 목포장복) 이 문화 공연 관람 기회가 적 은 지역 장애인들을 위해

‘2014 찾아가는 문화활동’ 행 사를 실시했다.

5월 26일 목포장복 강당에 서는 극단 ‘갯돌’의 ‘뽕파전’

공연이 열렸다.

‘뽕파전’은 판소리 ‘심청 전’을 재구성한 작품으로 뽕 덕어멈을 주인공으로 시대를 풍자한 마당극이다.

목포장복 관계자는 “극단 ‘갯돌’의 ‘뽕파전’이 복지관 이용 고객들에게 큰 웃음과 감동을 선사했다”며 “복지관 이용 고객들을 위해 다양한 공연을 준비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 장애인 문화 접근성 향상을 위해 관련 프 로그램 개발에도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장애인 당선인 축하연’ 이모저모

6월 20일 서울 공군회관에서 열린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장애인 당선인 축하연’.



행사장을 가득 메운 100여명의 참석자들.



지장협 김광환 중앙회장의 축사.



묵념하고 있는 내·외빈.



새누리당 안효대 의원과 인사를 나누고 있는 지장협 김광환 중앙회장.



장애인 당선인에게 축하 인사를 전하고 있는 지장협 김광환 중앙회장.





새누리당 심재철 최고위원의 축사.



나사렛대학교 김종인 부총장의 축사.

■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장애인 당선인

구 분	명 단	인 원
기초자치 단체장	▲서울 동대문구 유덕열 ▲서울 영등포구 조길형 ▲경기 성남시 이재명 ▲대전 유성구 허태정 ▲대구 북구 배광식	5
광역의원	▲서울 박기열 ▲서울 박마루 ▲서울 박운기 ▲서울 우창윤 ▲서울 황준환 ▲부산 김남희 ▲부산 이진수 ▲대구 김창은 ▲인천 김중환 ▲광주 문상필 ▲광주 서미정 ▲대전 구미경 ▲울산 김중래 ▲울산 문병원 ▲강원 김연동 ▲강원 이정동 ▲경기 김광성 ▲경기 서영석 ▲경기 송순택 ▲경기 이정훈 ▲충북 이의영 ▲전북 이호근 ▲전남 박철홍 ▲전남 임흥빈 ▲경북 김정숙 ▲제주 유진의	26
기초의원	▲서울 곽윤희 ▲서울 권영식 ▲서울 김명기 ▲서울 김춘례 ▲서울 박문수 ▲서울 박철성 ▲서울 소남열 ▲서울 이경옥 ▲서울 이동만 ▲서울 정형진 ▲서울 조정환 ▲부산 김만중 ▲부산 김정방 ▲대구 김중호 ▲대구 이승훈 ▲대구 이기주 ▲광주 이관식 ▲대전 박선용 ▲강원 이원규 ▲강원 이춘만 ▲경기 기길운 ▲경기 김경희 ▲경기 김관수 ▲경기 김동수 ▲경기 김선화 ▲경기 김정기 ▲경기 김진관 ▲경기 원용희 ▲경기 유선종 ▲경기 이은경 ▲경기 이화우 ▲경기 정진춘 ▲경기 조규홍 ▲경기 최용주 ▲충북 김성택 ▲충북 김정문 ▲충북 변창수 ▲충북 윤남진 ▲충북 윤석진 ▲충북 이병복 ▲충남 김선태 ▲충남 김현수 ▲충남 유기준 ▲전북 김승범 ▲전북 김용찬 ▲전북 김재오 ▲전북 배형원 ▲전북 백영규 ▲전북 이해연 ▲전북 임영택 ▲경북 복덕규 ▲경북 박귀룡 ▲경북 배영백 ▲경북 이용성 ▲경북 이재욱 ▲경남 김종대	87 56



서울특별시의회 박마루 당선인의 인사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유진의 당선인의 인사말.



서울특별시의회 우창윤 당선인의 인사말.



축하패를 전달받고 있는 충청북도 청주시의회 변창수 당선인(충북지장협 협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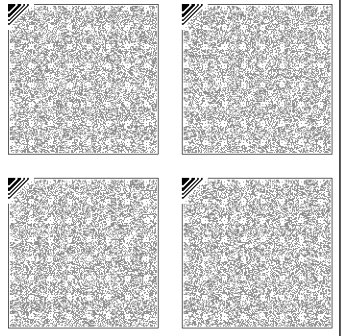
축하패를 전달받은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는 경상북도의회 김정숙 당선인(경북지장협 칠곡군지회 지회장).



축하패를 전달받은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는 경상북도 영주시의회 이재욱 당선인(경북지장협 영주시지회 지회장).



## 소리로 읽는 새보람



# 장애 학생들의 고민 해결사

## 장애인학생지원네트워크 김형수 사무국장

장애 학생들 사이에서 고민 해결사로 통하는 장애인학생지원네트워크 김형수 사무국장(40).

대학교 장애인 특례 입학제도 1세대인 그에게 장애 학생들은 다양한 고민을 털어놓는다.

단골 상담 주제는 입시, 취업, 연애. 김 사무국장은 장애 학생들에게 “진로를 선택할 때는 장애를 떠나 본인이 집중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사랑을 하고 싶다면 열심히 ‘썸’을 타라”고 조언했다.

### 열악했던 장애 학생 교육환경

뇌병변장애 2급인 김형수 사무국장은 장애인 특례 입학제도가 처음 생긴 1995년, 연세대학교에 입학했다.

그러나 캠퍼스 생활은 기대했던 것과는 달랐다. 장애인 편의 시설이 너무나 열악했기 때문이다.

“당시 학교에는 경사로, 장애인 화장실 등 장애 학생을 위한 최소한의 시설조차 마련되어 있지 않았어요. 장애 학생들이 밥을 먹을 수 있는 곳은 음식을 서빙해주는 교수식당 뿐이었죠. 하루는 휠체어를 타고 다니는 친한 친구가 계단에서 구르는 사고를 당하기도 했어요”

이러한 현실을 그냥 지켜볼 수만은 없었다. 뜻이 맞는 친구들과 장애인권동아리 ‘게르니카’를 만들어 장애 학우들의 교육권 확보와 인권 보장을 위한 일에 앞장섰다.

그리고 뜻하진 않았지만 대학교를 졸업하고도 계속해서 장애 학생들을 위해 일하게 됐다.

“사실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단순히 장애인 복지나 장애인 인권 관련 일을 하는 것을 좋아하진 않았어요. 글 쓰는 것을 좋아했고 시인이 되고 싶어 국어국문과를 선택하기도 했죠. 그런데 대학교를 졸업하고 장애 학생 운동에서 손을 떼려니 그동안 쌓은 노하우가 아깝더라고요”

그는 그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장애인학생지원네트워크 김형수 사무국장.

장애인편의시설촉진시민연대의 무장애 대학 만들기 운동에 참여했다.

### 장애 학생 지원 단체 설립

무장애 대학 만들기 운동을 펼치던 그는 일본 장애 학생들과 교류하며 일본에 장애 학생들을 전문적으로 지원하는 단체가 있다는 걸 알게 됐다.

하지만 우리나라에는 이런 단체가 없었다. 이에 그는 2003년, 장애인학생지원네트워크를 설립했다.

장애인학생지원네트워크의 목표는 장애 학생들이 대학에서 꿈을 펼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장애 학생들을 위한 입시 자료집이 부족해요. 매년 입시 제도가 바뀌기도 하고 장애인 입시 제도에 대해 잘 모르는 교사도 있어요”

장애인학생지원네트워크는 장애 학생들의 입시 상담을 주로 하고 있다. 특히 다른 곳에서 도움을 받기 힘든 발달장애, 자

폐성장애, 중증장애를 가진 학생들이 많이 찾아온다.

“학교 선택에서부터 자기소개서 쓰기, 면접시험 준비 등 장애 학생들의 대학 입학을 총체적으로 돕고 있어요. 전국 대학의 장애 학생들과 네트워크가 구축되어 있어서 상담하러 온 학생에게 가고자 하는 대학에 실제 재학 중인 장애 학생을 소개해 주기도 해요. 일종의 멘토링 서비스죠”

김 사무국장은 상담비를 받지 않는다. 상담이 유료화 되면 장애인학생지원네트워크가 상업화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사무실을 지키는 직원도 김 사무국장 한 명이나 다름없다. 혼자 사무실을 지키고 지원이 필요할 땐 회원들의 도움을 받는다. 사안에 따라 시민단체와 연계해 일을 진행하기도 한다.

### ‘장애’에 대한 두려움이 문제

장애 학생들이 필요로 하는 모든 분야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는 김 사무국장은 입시

외에 취업, 연애 상담도 자주 한다.

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하고 싶은 일에 도전조차 하지 않는 장애 학생들에게 그는 장애에 대한 걱정은 접어 두고 자신의 에너지를 투자할 수 있는 일을 찾으라고 조언했다.

“진로를 결정할 때는 고민의 포인트를 장애에 두지 말고 자신이 집중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고민해봐야 돼요. 장애인도 토목공학과를 갈 수 있고 축구 전문 기자가 될 수 있어요. 장애인이 많이 선택하지 않는 학과나 직종이 오히려 미래가 밝을 수 있죠”

그는 사회생활을 잘 하기 위해서는 비장애인을 이해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비장애인에게 장애인을 이해하라고만 할 것이 아니라 장애인들도 비장애인의 입장에서 생각해볼 필요가 있어요. 사회생활은 비장애인과 함께하는 거잖아요. 비장애인을 이해해야 같이 일할 수 있지 않을까요”

한편 연애 상담을 해오는 장애 학생들에게는 두려움을 버리라는 말을 전하고 싶다고 했다.

“장애인이 연애를 못하는 이유는 일단 사람을 만나지 않기 때문인 것 같아요. 자신의 장애에 대해 상대방이 어떻게 생각할지 걱정하다 소개팅이 들어와도 나가지 않죠. 나가야 되요. 작업을 해야죠. 열심히 ‘썸’을 타야 됩니다(웃음)”

### 장애 학생 향한 무한한 애정

하루의 대부분을 장애 학생 상담을 위해 보내는 그에게는 어떤 걱정거리가 있을까.

본인의 고민은 무엇인지 묻는 질문에 그는 언제까지 장애인학생지원네트워크를 운영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뜻밖의 대답을 내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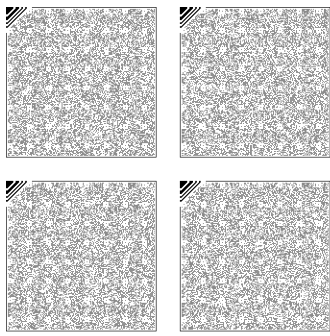
“평소 장애 학생들과 대화하기 위해 잡지도 보고 TV도 열심히 봐요. 근데 아무리 제가 아이돌 그룹 엑소의 멤버를 다 외워도 이제 40대 이다 보니 장애 학생들에게 제가 선생님 같은 느낌이 들지 않을까 걱정이에요. 50대에 장애 학생들을 만나서 연애 상담을 해주는 건 좀 힘들지 않을까요(웃음)”

평소 장애 학생들과 소통하기 위해 트렌드를 익히려고 노력하지만 연령대의 한계를 느낀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50대가 되기 전에는 장애인학생지원네트워크를 누군가에게 넘겨주는 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저는 어릴 적 꿈이었던 글 쓰는 일을 해보고 싶어요. 근데 장애인학생지원네트워크를 넘겨줄 때 저의 노하우를 어떻게 전달해줄지 고민이에요”

가까운 미래에는 어릴 적 꿈꾸던 일에 도전해보고 싶다면, 이대 장애인학생지원네트워크를 걱정하는 그의 모습에서 장애 학생들을 향한 무한한 애정이 느껴졌다.

소리로 읽는 새보람



# 만성폐쇄성폐질환, 흡연이 주요 원인

폐기능이 감소하거나 기도에 염증이 생겨 나타나는 호흡기 질환인 만성 폐쇄성폐질환 환자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연령이 높아질수록 남성 환자 수가 급증해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5월 26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만성폐쇄성폐질환으로 병원을 찾은 환자는 2007년 22만 2천명에서 2012년 24만 5천명으로 매년 약 2%씩 증가했다. 성별로 보면 여성에 비해 남성이 매년 1.5배 이상 많았다.

2012년의 경우 만성폐쇄성폐질환 환자 24만 5천명 가운데 남성은 15만 7천명(64%), 여성은 8만 8천명(36%)으로 남성이 여성의 1.8배에 달했다. 남성 가운데 50대 이상은 무려 92%나 됐다.

건강보험 적용 인구 10만명 당 진료 인원을 살펴보면 20대 40명, 30대 64명, 40대 130명, 50대 426명, 60대

1455명, 70대 3255명, 80대 4484명으로 나이가 많아질수록 환자수가 급격히 증가했다.

만성폐쇄성폐질환은 유해분진이나 가스에 대한 폐의 비정상적 염증반응으로 인해 발생한다.

호흡곤란, 만성기침, 가래의 증가 등이 3대 증상으로 초기에는 움직일 때 숨소리가 쉼쉼거리고 가슴이 답답한 증상이 나타나기도 한다.

치료를 하지 않으면 점차 진행돼 사망에 이르게 되며 경과 중에 악화 현상을 겪을 수 있다.

흡연이 약 80~90%의 원인으로 지목되는데 누적 흡연량과 관련이 있다.

또한 오랜 기간 직업적·환경적 물질에 노출, 원인물질이 축적되어 발병하므로 고령자에게 많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호흡기내과 김정주 교수는 “만성폐쇄성폐질환의

치료를 위해서는 금연하는 것이 중요하고 직업적·환경적 유해 물질 노출도 차단해야 한다”며 “호흡기 감염질환에 의한 증상악화가 빈번하기 때문에 인플루엔자나 폐렴알균 등 감염증에 대한 예방접종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폐기능이 감소한 경우 기관지 확장제, 기도에 염증이 생긴 경우 항염 작용제 등의 투약이 필요한데 이때 약물은 먹는 약보다는 흡입하는 약이 효과적이며 근본적이지는 않지만 증상에 대한 치료가 이루어지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 입 속 건강 괴롭히는 치주질환 주기적인 스케일링으로 치석제거 해야

‘국민질병’이라 해도 될 만큼 흔한 치주질환은 잇몸과 치아 사이의 흠에 염증이 생겨 조직이 손상되고 골 소실이 일어나게 되는 질병을 말한다.

치주질환은 질병의 정도에 따라 치은염과 치주염으로 나뉘는데 치은염은 잇몸에만 염증이 나타나는 초기 상태를 말하며 치주염은 잇몸과 잇몸 뼈 주변까지 염증이 확산된 상태를 일컫는다.

염증이 진행되면 잇몸과 치아 사이가 더욱 벌어지고 치조골과 치주인대가 파괴되는

악순환이 지속되다 결국 치아가 흔들려 빠지게 된다.

이러한 치주질환이 발생하는 원인은 치석이라 할 수 있다. 무색의 끈끈한 물질인 플라크가 제대로 제거되지 않고 단단해지면 치석이 되며 치석은 치아와 잇몸 사이에 염증을 일으킨다.

치주질환에 걸리면 잇몸이 빨갛게 붓고 출혈이 있을 수 있다. 심할 경우 치아와 잇몸 사이에 고름이 날 수 있으며 음식을 씹지 않아도 빈번하게 통증이 발생한다.

치주질환을 예방하기 위해

서는 원인인 치석을 제거하는 일이 급선무다.

심하지 않은 치주질환은 잇몸 위, 눈에 보이는 경계부분의 치석을 제거하는 스케일링 치료를 한다. 스케일링은 6개월에 한 번씩 받는 것이 치아 건강에 좋다.

단단하게 굳은 치석을 스케일링만으로 제거하기 힘든 경우 치주소파술을 시행한다.

치주소파술은 레이저 자체의 살균력으로 인해 잇몸에 퍼져 있는 염증 치료에 효과적이다.

절개가 없어 치료 부위가 아무는 시간이 빠르고 출혈도

적어 수술 후 바로 식사 등의 일상적인 생활이 가능한 장점이 있다.

일반적인 치주 치료만으로 잇몸질환이 개선되기 어려울 때는 치주 수술을 실시한다.

잇몸을 열어 치아와 뿌리가 잘 보이도록 한 다음 잇몸 속의 치석을 깨끗하게 제거하고 다시 잇몸을 닫아 봉합하는 과정을 거친다.

하지만 치주 수술로도 회복이 안 되는 경우에는 발치해야 한다.

네모치과병원 최용석 대표 원장은 “치주질환은 전신질

환이 될 수 있을 정도로 무서운 질병이므로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며 “1년에 두 번 이상 정기 검진을 받아 자신의 치아와 잇몸의 건강 상태를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고 전했다.

최 원장은 또 “치주질환의 원인인 치석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평상시 칫솔질을 할 때 치아 바깥쪽과 안쪽 씹는 면을 잘 닦아야 한다”며 “치실을 이용해 칫솔이 닿지 않는 부분까지 꼼꼼하게 잔여물을 제거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 ‘장애인 고용지원 인식개선 문화제 시상식’ 성료

## 장고협, 입상작 78편 선정...상장 및 상금 수여

사단법인 한국장애인고용안정협회(중앙회장 조항현, 이하 장고협)가 장애인 문화 예술 작품을 통해 장애인이 다양한 가능성을 지닌 근로 주체임을 알리기 위해 나섰다.

장고협은 6월 11일 세종문화회관 세종홀에서 ‘2014 장애인 고용지원 인식개선 문화제 시상식’을 개최했다.

장고협은 지난 2월부터 3월까지 한 달 동안 ‘장애인 고용과 장애인 인식개선’을 주제로 운문, 산문, 사진, 컴퓨터그래픽, 창작만화, 광고 등 6개 부문에 대한 작품을 공모한바 있다.

그 결과 1023편의 작품이 출품됐고 장고협은 전문가 심사를 통해 부문별 금상·은상·동상 각 1편, 가작 각 5편, 입선 각 5편 등 총 78편을 선정했다.



‘장애인 고용지원 인식개선 문화제 시상식’과 함께 진행된 입상작품 전시회.

시상식에서는 이들 입상자에 대한 상장 및 상금 수여식이 진행됐다.

장애인이 참여한 운문, 산문, 사진, 컴퓨터그래픽, 창작만화 부문 금상은 각각 서경애 씨(시각장애)의 ‘침선’, 조승리 씨(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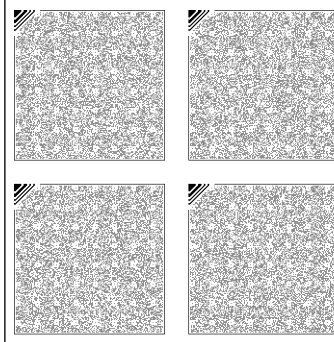
각장애)의 ‘탱고를 추는 시간’, 이재남 씨(지체장애)의 ‘환희’, 윤병현 씨(지체장애)의 ‘win win’, 윤석호 씨(뇌병변장애)의 ‘갑자기’가 차지했다.

비장애인을 대상으로 진행됐던 광고 부문 금상의 영예는 손

태원 씨의 ‘꼭 필요한 사람입니다’에 돌아갔다.

문화제 입상자는 “오늘을 계기로 다시 한 번 꿈에 대한 희망을 가질 수 있게 되어 행복하다”며 “문화제가 많이 알려져 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에 많은 도

### 소리로 읽는 새보람



움이 됐으면 한다”는 소감을 전했다.

장고협 조항현 중앙회장은 “이번 문화제에 참여한 장애인들의 문화·예술적 역량에 심사위원들의 감탄이 이어졌다”며 “앞으로 장애인 근로자들의 문화 예술 활동 활성화를 통해 장애인에 대한 편견이 사라지고 장애인 고용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시상식에는 한국지체장애인협회 김광환 중앙회장,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박승규 이사장, 새정치민주연합 최동익 의원 등 많은 내·외빈이 참석했다.

## 장애 미술가 작품 판매 전시회 열려

### 장애 미술가 지원 위한 ‘제1회 장애인창작아프페어’

장애 미술가 작품 판매 전시회 ‘제1회 장애인창작아프페어’가 6월 9일부터 13일까지 문화역서울284에서 열렸다.

장애 미술가의 작품 판로 개척과 장애 예술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장애인창작아프페어’는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열린 행사로 장애 미술가들의 작품 전시와 작품 경매로 진행됐다.

공모를 통해 선정된 88명의 장애 미술가와 국내 22개의 유명 화랑이 작품을 판매하고 홍보 활동을 펼쳤다.

이번 행사에서는 장애 작가와 비장애 작가의 협업 작품도 만날 수 있었다.

협업 전시에는 세계적으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권기수 작가, 자폐성 장애를 갖고 있지만 동물그림 화가로 이름을 떨치고 있는 신수성 작가 등이 참여해 의미 있는 작품을 선보였다.

장애 작가의 인생과 예술 이야기를 전시로 해석한 특별전시, 장애를 현대적 미디어 영상물을 통해 상영하는 영상전시, 88명의 장애 작가에 대한 정보를 열

람할 수 있는 아카이브전 등도 마련됐다.

장애 미술가 지원이라는 이번 행사의 취지를 살리기 위한 계약 체결도 이루어졌다.

지적장애 작가 데니스 한과 국내 유명 화랑 ‘한옥’이 전속 계약을 체결했으며 한국장애인미술협회 김충현 회장과 출판사 ‘헉사곤’이 미술 전문 출판 계약을 맺었다.

한편 이번 행사를 위해 가수 겸 뮤지컬 배우인 바다와 영화배우 윤동환이 홍보대사로 참여했다.

## 장애인 종합예술단 ‘다소니예술단’

### 첼버 오케스트라 · 합창 · 뮤지컬 공연



다소니 첼버 오케스트라단이 연주를 하고 있다.

광명장애인종합복지관 소속 다소니예술단의 네 번째 정기연주회가 5월 26일 200여명의 관중이 모인 가운데 공주대학교 백제교육문화관에서 열렸다.

다소니예술단은 지적·자폐성 장애인으로 구성된 국내 최초의 종합예술단으로 다소니 첼버 오케스트라단, 다소니 합창단, 다소니 뮤지컬단이 소속되어 있다.

이날 연주회는 다소니 첼버 오케스트라단의 ‘꽃의 왈츠’ 연주를 시작으로 막이 올랐다.

이후 다소니 첼버 오케스트라단은 사운드 오브 뮤직,

라데츠키 행진곡, 오페라의 유령 등을 연주해 관객들에게 감동을 선사했다.

이후 다소니 뮤지컬단의 갈라쇼 ‘사랑의 노래’와 다소니 합창단의 가곡 무대가 이어졌다.

다소니예술단의 무대에 관객들은 박수와 함성으로 보답했다.

광명장애인종합복지관 관계자는 “다소니는 사랑하는 사람을 뜻하는 우리말”이라며 “다소니예술단이 이롭처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공연을 통해 기쁨과 희망을 나누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 ‘제15회 장애인영화제출품작’ 공모

### 6월 30일까지 우편·이메일 접수

장애인영화제조직위원회가 오는 9월 26일부터 29일 열릴 예정인 ‘제15회 장애인영화제’ 경쟁부문 출품작을 공모한다.

경쟁부문 출품작은 장애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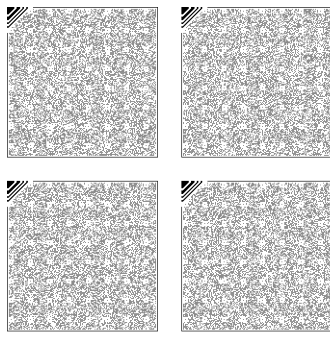
소재로 제작됐거나 장애인이 제작 또는 참여해 제작한 작품이면 된다. 단, 2012년 1월 1일 이후 제작 완료된 작품이어야 한다.

작품은 6월 30일까지 장애인

영화제 사무국으로 우편(서울 성동구 성수2가 3동 289-20 보라빌딩 4층) 또는 이메일(pdflove@hanmail.net)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장애인영화제조직위원회는 대상 1편(300만원), 우수상 2편(200만원), 인권상 1편(150만원), 신진감독상 1편(100만원), 특별상 1편(50만원)을 선정해 7월 발표할 계획이다.

소리로 읽는 새보람



문은 정호원 선수(속초장애인체육회), BC4 부문은 장성욱(경기도보치아연맹) 선수가 1위를 차지했다.

오텍그룹 회장이기도 한 서울시장장애인보치아연맹 강성희 회장은 “지난해에 이어 ‘오텍그룹배 전국보치아선수권대회’가 2회를 맞아 감회가 새롭다”며 “앞으로 장애인과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한편 소외계층을 위한 후원활동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대회는 오텍그룹이 주최하고 대한장애인보치아연맹과 서울시장장애인보치아연맹이 주관했다.

# ‘오텍그룹배 전국보치아선수권대회’ 개최

## 전국 16개 시·도 120여명 선수 참가

‘2014 오텍그룹배 전국보치아선수권대회’가 5월 26일부터 28일까지 3일 동안 서울 강동구 올림픽공원 SK핸드볼경기장에서 열렸다.

오텍그룹은 대표적인 장애인 스포츠인 보치아를 국내에 널리 알려 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우수한 선수를 발굴해 장애인 스포츠의 저변을 확대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전국보치아선수권대회’를 개최하고 있다.

보치아는 뇌성마비 중증장애인을 위해 고안된 특수 구기 종목으로 지난 1988년 장애인올림픽 정식 종목으로 채택된 이후 국제적인 장애인 스포츠로 거듭나고 있다.

올해 대회에는 전국 16개 시·도에서 120여명의 선수들이



‘2014 오텍그룹배 전국보치아선수권대회’ 참가 선수들이 경기에 열중하고 있다.

이 개인전 4개 세부 종목(BC1, BC2, BC3, BC4)에 참가해 우승

을 위한 경쟁을 펼쳤다.

그 결과 BC1 부문은 정성준

(신애재활원), BC2 부문은 손정민(경기도보치아연맹), BC3 부

## 장애인사이클 이도연, 국제대회 우승

### 도로월드컵대회 15km...아시아 선수 최초

장애인사이클 이도연(여, 42세) 선수가 아시아 선수 최초로 국제대회 우승을 차지했다.

5월 9일 이탈리아 카스티글리오네 델라페스카이아에서 열린 ‘2014 이탈리아 UCI 장애인 사이클 도로월드컵대회’에서 이도연 선수는 개인 도로독주 15Km(WH4) 부문 1위에 올랐다.

이도연 선수는 26분 17초 55의 기록으로 2위를 차지한 러시

아의 스베틀라나 모스코비치(Svetlana Moshkovich) 선수를 17초 30 차로 제치고 여유 있게 결승선을 통과했다.

세계 랭킹 1위인 독일의 판 실케(Pan Silke) 선수와 3위인 영국의 엘리자베스 맥터먼(Elizabeth Mcteman) 선수는 각각 4위와 6위를 차지했다.

이도연 선수가 세계 정상급 선수들이 출전한 가운데 우승 쾌거

를 이루면서 오는 ‘2014 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와 ‘2016년 리우장애인올림픽’에서 그녀가 어떤 활약을 펼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한편 이도연 선수는 2011년 휠체어육상으로 운동을 처음 시작했지만 핸드사이클의 매력에 매료돼 2013년 종목을 전환, 선수활동 첫 해에 국가대표로 선발되는 영예를 안은바 있다.

## ‘충청남도 장애인 농구 클럽대항전’ 열려

### 무궁화전자농구단·아산BIGS 부문별 우승 차지

‘2014 충청남도 장애인 농구 클럽대항전’이 5월 17일 아산시 이순신 빙상장 실내체육관에서 열렸다.

‘충청남도 장애인 농구 클럽대항전’은 장애인팀과 비장애인팀이 함께 하는 대회로 매년 개최되고 있다. 경기는 휠체어, 지적장애 등 2개 부문으로 진행된다.

이번 대회 휠체어 부문에는 아산휠스파워농구단·대전휠체어농구단·무궁화전자농구단·백석대학교농구단·아산시장애인복지관동호팀, 지적장애 부문에는 아산BIGS·천안점프농구클럽·홍성군장애인체육회·군포시장장애인복지관이 참가해 기량을 겨뤘다.

그 결과 휠체어 부문 우승은 무궁화전자농구단, 지적장애 부문 우승은 아산BIGS가 차지했다.

뛰어난 경기력을 보여준 선수에게 주어지는 MVP는 무궁화전자농구단 김정수 선수와 아산BIGS 유태훈 선수에게 돌아갔다.

## 아산시 장애학생들에게 꿈과 희망을...

### 美 국무부 스포츠 대사 프로그램 ‘농구클리닉’



‘농구클리닉’에 참가한 아산시장애인복지관 농구교실 학생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미국 국무부 스포츠 대사 프로그램 ‘농구클리닉’이 아산시장애인복지관 농구교실 학생들을 대상으로 5월 23일 이순신 실내체육관에서 진행됐다.

‘농구클리닉’은 장애 학생들에게 꿈과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농구클리닉’에서는 국무부 스포츠 대사인 전직 농구선수 알렉스 잉글리시(Alex English)와 나이케샤 세일즈(Nykesha Sales)가 장애 청소년 40여명을 대상으로 강의를 펼쳤다.

알렉스 잉글리시는 미국프로농구(NBA) 득점왕 출신이

며 나이케샤 세일즈는 미국 여자프로농구(WNBA)에서 여러 차례 올스타에 선정된 바 있다.

아산시장애인복지관 이창호 관장은 “아산시 장애 학생들에게 좋은 기회를 준 미국 대사관과 아산시, 아산시장애인체육회에 감사드린다”며 “앞으로 장애 학생들이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장애 청소년 스포츠 교실 또는 장애인 생활체육 동호회 활동 참여 희망자는 아산시장애인복지관 문화·체육지원팀(☎041-545-7727)으로 문의하면 된다.

# 월드컵 개막식 장애인 시축 눈길

## 외골격 로봇 착용...뇌파 인식해 작동

2014 브라질 월드컵 개막식에서 장애인이 시축에 나서 눈길을 끌었다.

6월 13일 브라질 코린치앙스 경기장에서 열린 월드컵 개막식에서 하반신 마비 장애인이 외골격 로봇을 착용하고 시축 행사에 참여했다.

BBC 등 외신 보도를 종합해 보면 외골격 로봇은 듀크대학교 미구엘 니콜레리스(Miguel Nicolelis) 교수를 비롯한 전 세계 150여명의 연구진이 진행한 '다시 걷기 프로젝트(The Walk Again Project)'를 통해 개발됐다.

이번 프로젝트를 위해 미구



외골격 로봇을 착용하고 월드컵 개막식 시축에 나선 장애인. <사진 : YouTube 캡처>

엘 니콜레리스 교수는 지난해 11월부터 25~35세 하반신 마비 환자 8명을 대상으로 외골

격 로봇 사용 훈련을 진행했다.

외골격 로봇은 컴퓨터가 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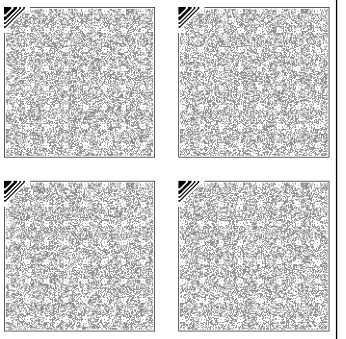
의 신호를 읽어 명령을 내리는 기술을 활용했다.

바닥에는 압력과 온도 등을

감지하는 센서가 부착되어 있어 착용자가 땅을 밟으면 촉감이 진동 형태로 전달되기도 한다.

프로젝트에 참가한 독일 뮌헨 공대 고든 쉥(Gordon Cheng) 연구원은 "누군가에게는 시축행사가 단지 월드컵 개막식에 불과할 수 있지만 과학이 사람들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보여주고 장애를 극복하려는 환자들에게 용기를 줄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 소리로 읽는 새보람



## “왕따 피해자에게 용기 주고 싶어요” 희귀병 여성 본인 이야기 영화로 제작



자신을 소재로 한 다큐영화를 제작 중인 리지 벨라스케스. <사진 : the Independent>

희귀병 때문에 왕따를 당했던 미국 여성이 자신을 소재로 한 영화를 제작 중에 있어 전 세계인들의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다.

하루에 60번 식사를 하지만 몸무게가 29kg 밖에 되지 않는 리지 벨라스케스(Lizzie Velasquez, 25)가 그 주인공이다.

그녀는 아무리 음식을 섭취해도 영양분이 몸에 축적되지 않는 희귀병을 앓고 있다.

뼈가 앙상하게 드러난 모습 때문에 어릴 때부터 친구들에게 놀림을 당했다.

고등학교 때는 누군가가 인터넷에 ‘세상에서 가장 못 생긴 여자’라는 제목으로 그녀의 모습이 담긴 영상을 올려

수백만의 클릭 수를 기록하기도 했다.

인디펜던트 등 외신에 따르면 그녀는 예전 자신처럼 왕따를 당하는 이들에게 용기를 주고자 ‘리지 프로젝트(The Lizzie Project)’라는 다큐멘터리 영화를 제작하고 있다.

그녀는 “영화를 통해 극복하지 못할 것은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고 싶다”고 밝혔다.

한 때 왕따로 힘든 시간을 보냈지만 스스로 행복해지기로 결심한 리지 벨라스케스는 현재 작가, 강연자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페이스북 등 SNS를 통해 여러 가지 이유로 좌절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힘을 실어주고 있기도 하다.

지난해에는 테드 강연을 통해 “외모가 아닌 목표와 성공, 성취가 나를 규정한다”고 밝혀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주기도 했다.

## 남아공 점자 햄버거 화제 시각장애인 위한 배려 감동



남아공 패스트푸드 브랜드 뽀피의 점자 버거 광고 영상. <사진 : YouTube 캡처>

남아프리카공화국 패스트푸드 브랜드 뽀피(wimpy)가 지난 2012년 점자 메뉴판 도입을 알리기 위해 제작했던 광고가 네티즌들 사이에서 화제다.

유튜브에 공개된 이 광고 영상에는 뽀피의 요리사가 참깨를 이용해 햄버거 빵 위에 점자를 새겨 넣는 과정이 담겨있다.

완성된 햄버거에는 ‘100% 순수 쇠고기 버거(100% PURE BEEF BURGER MADE FOR YOU)’라는 메시지가 새겨져 있다.

이 햄버거는 시각장애인 관련 단체 3곳에 전달됐고 시각장애

인들은 햄버거에 새겨진 메시지를 확인하고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어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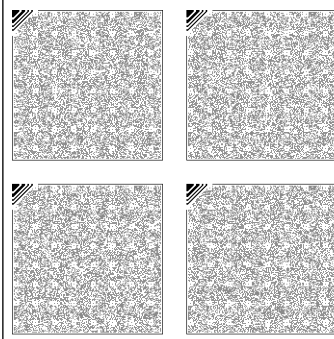
이 광고 영상은 인터넷을 통해 전 세계로 퍼져나갔고 이를 접한 네티즌들은 ‘신선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광고 영상의 출발은 점자 메뉴판 도입을 알리기 위한 것이었지만 음식에 대한 정보를 눈으로 확인할 수 없는 시각장애인에 대한 뽀피의 배려가 돋보였다는 평가다.

이 광고 영상은 2012 칸느 국제광고제에서 금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 소리로 읽는 새보람



# 정부세종청사의 편의시설을 둘러보고

이번 호에서는 정부세종청사의 매개 시설, 내부시설, 위생시설, 안내시설, 기타시설 등이 편의증진법에 의한 설치기준대로 설치되어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지난 1월 정부세종청사를 방문해 LH공사, 청사관리소 직원과 함께 국가보훈처·보건복지부·고용노동부가 있는 2-1 구역, 산업통상자원부·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가 있는 2-2 구역의 편의시설을 점검해봤다.

그 결과 매개시설의 경우 주출입구 접근로에 문제가 있었다. 휠체어 사용 장애인을 위한 경사 기울기와 접근로 상에 있는 장애물이 문제였다.

보건복지부 접근로의 기울기가 18분의 1을 초과할 뿐만 아니라 시각장애인을 위해 설치된 유도블록은 굳게 잠긴 철문에 막혀 독자보행은 불가능하게 되어 있었다.



보건복지부 주출입구접근로.



보건복지부 좌측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도 문제가 많았다. 청사 출입증이 있으면 정문으로 들어가 보건복지부 1층 좌측에 설치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주차를 할 수 있다.

물론 공무원이면 더 편리하게 지하 1층 주차장으로 바로 직행해 승강기를 타고 안내실로 가는 것이 가능하다.

주차노면도 조경석으로 마감이 되어 있어 휠체어 사용자는 이동이 불가능했다.

출입증이 없는 일반 민원인인 장애인은 보건복지부 청사 후문 대단위 공용 주차장에 설치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를 하고 200m 이상을 돌아서 걸어오게 되어 있었다.

ID카드를 갖고 있으면 후문으로 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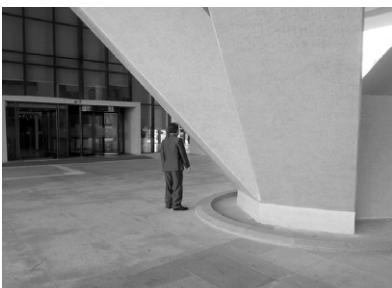
입이 가능하지만 이 역시 휠체어 사용 장애인은 물리적 구조로 인해 출입이 불가능해 보였다.

가운데에는 창살형 좁은 회전문이 있었고 양 옆으로는 일반 철문이 잠겨 있었다. 열려 있다 하더라도 턱이 있고 폭이 충분하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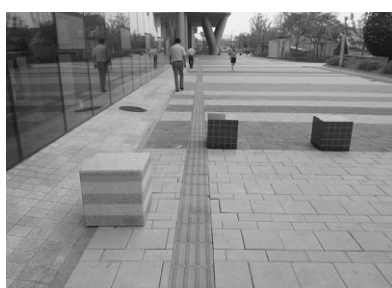
접근로 상에는 시각장애인뿐만 아니라 일반 보행자들도 충돌할 수 있는 조경물, 길말뚝 등 다양한 보행 장애물들이 준비하게 놓여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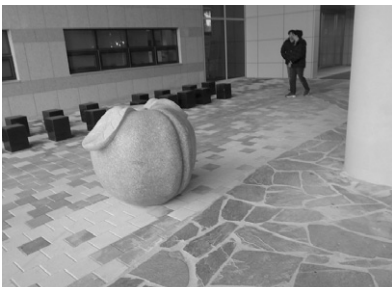
보건복지부 후문.



국토교통부 전면.



국토교통부 앞 점자블록과 길말뚝.



보건복지부 앞 조형물.

주출입구에 설치된 시각장애인을 위한 촉지도식 안내판은 놓인 위치와 촉지도상의 안내방향과 일치하지 않았다.

또한 관리가 되지 않아 먼지가 쌓여 시각장애인이 이용을 꺼리기에 충분했다.

위생시설은 장애인용 대변기의 수평 손잡이 간 높이가 동일하지 않을뿐더러 간격 또한 기준을 준수하지 않고 있었다.

그리고 정부세종청사는 구역별로 시공사가 모두 다르다.

그러다 보니 동일한 대변기 손잡이를 설치해 두었음에도 설치기준을 위반한 내용들은 시공사별로 다르게 나타났다.

일례로 2-1구역 G\*건설사의 경우는 수평 손잡이 간 높이가 동일하지 않았고 2-2구역의 대\*건설사의 경우는 세면대에 거울을 설치하지 않고 있었다.

일부 동에는 화장실 입구의 문을 SWING DOOR(일명 카우보이 문)을 설치해 휠체어 사용자의 화장실 출입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사용자의 머리에 부딪힐 수밖에 없어 사고위험이 상존하고 있었다.



높이가 다른 보건복지부 장애인용 대변기 수평손잡이.



환경부 화장실의 스윙도어.

마지막으로 안내표지와 회전문에 대하여 지적하고자 한다.

동일한 의미의 안내표지가 동일한 곳에서 조차 모양이 달라 보는 이들로 하여금 혼란을 일으키게 했다.

이러한 안내표지의 사용은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기술표준원에서 국가표준을 정해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공공건물에는 의무화를 하고 있음에도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잘못된 표지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회전문은 문과 충돌시 자동정지가 되는 장치가 있어야 하나 현장에서 실험

을 해본 결과 회전문이 사람이 다가가도 빠른 속도로 돌아갔다. 사람이 부딪혀도 정지하지 않고 계속 돌아가고 있었다.

위험에 빠르게 대처하지 못하는 장애인의 경우에 심각한 사고를 당할 수 있다.



통일성 없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안내표지.



충돌시 자동정지 되지 않는 환경부의 회전문.

한국지체장애인협회는 이러한 정부세종청사 편의시설의 문제점에 대한 의견서를 정부청사관리소에 전달하고 수정해 줄 것을 요청했다.

지난 1월 살펴보지 못한 구역에 대해서는 앞으로 점검을 실시하고 문제점은 개선을 요청해 정부세종청사를 찾는 장애인들의 접근권을 보장해 나갈 계획이다.



사단법인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지체장애인편의시설중앙지원센터  
편의증진국장 **홍 연 근**

## 노동상담

조호근 (한국장애인고용안정협회 장애인노동상담센터장)

## 주휴수당의 두 얼굴

## 사용 요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장애 때문에 연차휴가를 사용할 일이 많은 장애인근로자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아 얼마 전 우리 장애인노동상담센터 상담게시판에 올라 온 주휴수당에 관한 상담내용을 소개하려고 한다.

피상담자가 근무하는 회사는 주 40시간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월요일부터 7일을 1주로 정하고 소정의 근로일을 개근하였을 경우 토요일과 일요일에 대해 1일의 유급휴가와 무급휴가를 지급하고 있다.

## 주휴수당[週休手當]

1주 동안 규정된 근무일수를 다 채운 근로자에게 유급 주휴일을 주는 것으로 사용자가 1주일 동안 소정 근로일수를 개근한 노동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하는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제도이다.

주휴일은 상시근로자나 단기간 근로자에 관계없이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한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되며 '1일 근로시간 × 시급'으로 계산한다. 또 주휴수당은 임금에 해당되기 때문에 사용자가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임금체불로 고용노동부에 진정 대상이 된다.

이번에 개인적으로 일이 생겨 연차휴가를 5일 신청하려고 하는데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연차휴가를 신청하고 결제를 받았을 경우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와 받을 수 없다면 다른 방법은 없는지 문의한 경우였다.

사실 주휴수당은 주 단위를 기준으로 발생여부를 판단하기 때문에 해당 주에 결근이 발생하여 만근에 해당되지 않

는다면 주휴수당은 발생되지 않는다. 이 경우 무급휴일이 된다.

하지만 연차휴가를 사용했을 경우에는 출근한 것으로 간주되어 출근율에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비록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출근으로 간주되어 만근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피상담자의 경우처럼 주의 전부를 연차휴가로

사용하여 근로제공이 없었다면, 해당주의 주휴일은 발생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따라서 소정근로일이 월요일부터 금요일인 사업장에서 5일 전부를 연차휴가로 사용하였다면 해당주의 주휴수당은 발생되지 않는다.

피상담자가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연차휴가를 사용할 요일을 변경하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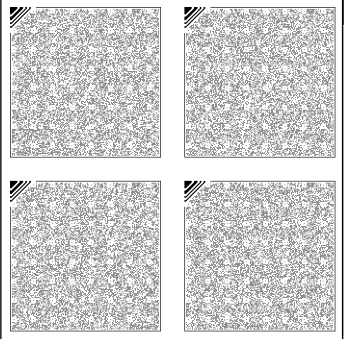
것으로 5일의 연차휴가를 2주 동안에 나누어 사용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목요일, 금요일,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로 사용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첫 주 연차휴가를 목요일과 금요일에 사용하게 되면 월요일부터 수요일의 출근율에 의해 해당 주의 주휴수당 발생여부를 판단하게 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각각의 주단위로 출근율을 산정하기 때문에 동일하게 5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하더라도 월요일부터 금요일을 연속해서 사용하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지만 2주 동안 나누어 목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사용하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큰 차이가 있다.

따라서 피상담자처럼 연차휴가를 사용하면서 주휴수당도 받으려면 요일을 잘 선택해야 한다.

## 소리로 읽는 새보람



## 민원상담

정연숙 (북부장애인직업재활시설 원장)



**Q) 장애등급 결정 내용에 대한 이의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 장애심사 대상자가 장애등급 결정 내용에 이의가 있을 때는 통보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관할 시·군·구(읍·면·동) 주민센터에

이의신청을 하면 다시 장애심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장애를 증빙할 추가 자료가 있을 때 이의신청을 해야 하나 추가 자료가 없어도 다른 전문의들에게 다시 심사받기를 원하면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Q) 장애등급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을 했는데 다시 심사한 결과에도 승복하지 못하면 어떻게 하나요?**

**A)** 이의 신청은 한 번만 허용되며 그 결과에도 이의가 있을 때는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

할 수 있습니다.

**Q) 결정이 보류된 건에 대해 부족한 자료를 보완 첨부하면 다시 장애등급 심사를 받을 수 있나요?**

**A)** 치료기간을 충족한 후 자료를 보완하여 신규로 장애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새로 심사해서 장애등급이 결정된 날을 기준으로 장애인 등록일을 결정합니다.

결정 보류로 심사되었으나 치료기간을 충족하였음을 증빙할 추가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동 자료를 첨부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

청에 따라 장애심사를 실시하여 장애등급이 결정되면 장애인등록일은 최초 장애인등록 신청 시의 장애등급 결정일로 합니다.

**Q) 장애등급심사 결과를 시·군·구에 통보하기 전에 실시하는 '사전의견진술제도'가 무엇인가요?**

**A)** 기존 활동지원서비스 수급자가 장애 재판정 과정에서 국민연금공단에서 장애심사 결과 장애등급이 하락한 것으로 확인되면 공단이 심사결과를 시·군·구에 통보하기 전에 장애인에게 심사결

과에 대한 이의 여부를 물어 사전에 추가 자료 등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사전의견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다시 한 번 공단에서 확인심사를 하여 확인심사 결과를 시·군·구(읍·면·동)에 통보하는 제도입니다.

**Q) '사전의견진술제도'는 왜 운영하나요?**

**A)** 이의신청은 장애등급 변경 처분 후에 이루어지는데 활동지원 서비스의 부적절한 일시 중단이 없도록 장애심사 결정을 신중히 하기 위한 것입니다.

## 지장협, 장애인 취업 도우미로 나서

### 지원서 작성법 · 면접전략 교육 실시



지장협이 6월 3일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개최한 장애인 취업 전 교육.

사단법인 한국지체장애인협회(중앙 회장 김광환, 이하 지장협)가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와 함께 장애인 취업 도우미로 나섰다.

지장협은 6월 3일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장애인 구직자 2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취업 전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에서는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작성법, 면접전략에 대한 강의가 진행됐으며 현장에서 구직상담도 이루어졌다.

또한 취업에 성공한 장애인 당사자들의 사례 발표도 이어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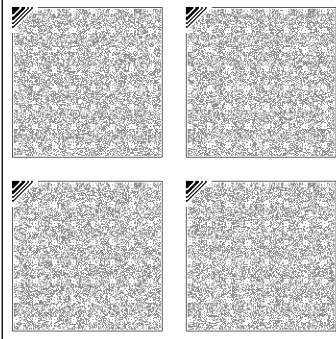
지장협 관계자는 “구직자들이 서류전형, 면접전형 등 취업을 위해 거쳐야 하는 모든 과정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취업 전 교육의 목표”라고 설명했다.

이어 “교육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교육 참가자들이 취업에 성공할 때 까지 구직상담, 취업알선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장협은 장애인들의 고용확대를 위해 매년 취업 전 교육 외에도 취업자 간담회, 사업주 간담회, 취업 박람회 등을 실시하고 있다.



### 소리로 읽는 새보람



여행 산업 분야 장애인 고용 활성화 및 직무개발을 위한 협약식.

## 여행 산업 분야 장애인 진출 기대

### 장애인고용공단 · (주)모두투어 MOU 체결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주)모두투어네트워크가 5월 27일 장애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해 여행 산업 분야에 장애인 진출이 활발해질 전망이다.

이날 (주)모두투어네트워크는 장애인 고용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장애인에게 적합한 직무 개발과 취업알선 서비스 제공에 힘을 쓸 것을 약속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특히 장애인 여행 코디네이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여행 코디네이터는 최근 정부에서 발표한 미래 한국 100대 유망직종 중 하나로 여행 상품의 기획, 개발, 마케팅 등을 담당하는 여행 디자이너를 말한다.

장애인 여행 코디네이터는 기존 여행 코디네이터 직무에서 더 나아가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여행 상품을 기획하게 된다.

(주)모두투어네트워크 한옥민 사장은 “여행코디네이터 외에도 웹개발, 웹디자인, 웹퍼블리싱, 해피콜서비스 등 다양한 직무에 장애인을 채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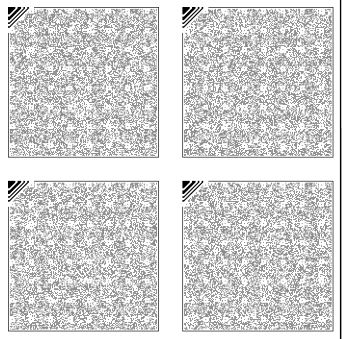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 권기돈 원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여행 산업 분야에 장애인 고용이 활성화되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여가에도 차별이 없어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 ● 취업정보

	업종	업 체 명	근무지	연령	성별	근무내용	급여	보험	연락처
1	경비직	(주)한얼관리	서울 강남구	65세 이하	남	경비직	월 127만원	4대보험	02-2289-4321
2	경비직	(주)국제안전시스템	서울시 강북구	65세 이하	남	경비직	월 113만원	4대보험	02-2289-4321
3	단순직	한국장애인정보화협회 인쇄사업단	서울시 영등포구	50세 이하	무관	단순직	월 119만원	4대보험	02-2289-4322
4	사무직	(주)아리오아웃소싱	서울시 마포구	30세 이하	무관	사무직	월 140만원	4대보험	02-2289-4321
5	단순직	엘림실업	경기도 구리시	40세 이하	남	단순직	월 90만원	4대보험 미가입	02-2289-4321
6	사무직	브랜드인덱스	서울 강남구	35세 이하	무관	사무직	연봉 1800만원	4대보험	02-2289-4322
7	단순직	인앤드인	서울 중구	무관	무관	식당 보조	월120만원	4대보험	02-2289-4321
8	생산직	청밀	경기도 용인시	무관	무관	농산물 세척 및 포장	월 130만원	4대보험	02-2289-4322
9	주차관리	(주)청인시에스 비즈니스글로벌	서울시 강남구	40세 이하	남	운전직	월 150만원	4대보험	02-2289-4322
10	생산직	큰집곳간에뽕소리	경기도 광주	무관	남	생산직	월 120만원	4대보험	02-2289-4322
11	생산직	가람헤어테크	인천시 계양구	무관	무관	생산직	월 120만원	4대보험	02-2289-4322
12	단순직	(사)해든	서울시 금천구	45세 이하	무관	DB관리자	월 100만원	4대보험	02-2289-4322
13	경비직	(주)취세텍	경기도 남양주	65세 이하	남	경비직	월 120만원	4대보험	02-2289-4321
14	경비직	삼우안전관리	서울시 강남구	65세 이하	남	경비직	월 146만원	4대보험	02-2289-4322
15	생산직	아이퍼니처	서울시 강동구	60세 이하	남	생산직	월150만원	4대보험	02-2289-4321
16	서비스	군포서비스주식회사	경기도 군포시	30세 이하	남	서비스	시급 5210원	4대보험	02-2289-4321
17	단순직	꿈꾸다	재택근무	무관	무관	사진선별	건당 5000원	-	02-2289-4322
18	단순직	미래환경	경기도 용인시	연령무관	무관	재활용 분류직	월 95만원	4대보험	02-2289-4322
19	소독직	나라개발시스템	서울시 전역	60세 이하	무관	소독직	월 120만원	4대보험	02-2289-4321



소리로 읽는 새보람



# '기부' 세상을 따뜻하게 하는 원동력

## 특별한 기부행사 '5월의 러브레터'

행사 수익금으로 아산 장애인 후원



기부행사 '5월의 러브레터'.

어버이날, 스승의 날, 부부의 날 등 특별한 날 고마운 이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을 위한 나눔도 실천할 수 있는 특별한 기부행사가 열렸다.

아산시장애인복지관(관장 이창호, 이하 아산장복)은 5월 8일 순천

향대학교 글로벌가든에서 '5월의 러브레터' 행사를 개최했다.

'5월의 러브레터'는 고마운 이들의 명의로 기부금을 납부하면 그들에게 크리스탈 액자, 편지, 기부금 영수증을 발송

해주는 행사이다.

이번 행사를 통해 모인 수익금은 아산 지역 장애인들을 위해 쓰이게 된다.

기부 동참에 대한 문의는 아산장복 지역·권익옹호지원팀(☎041-545-7727)으로 하면 된다.



후원금 전달식.

## 제주시여성대학 13기, 장애인 후원

제주지장협 통해 장애인 밴드 지원

제주특별자치도지체장애인협회(협회장 부형종, 이하 제주지장협)는 5월 13일 제주시여성대학 13기로부터 후원금을 전달받았다.

제주지장협이 제주시여성대학 13기로부터 전달받은 후원금은 지체장애인 밴드 'MEP' 운영 지원을 위해 쓰일 예정이다.

제주시여성대학 13기 관계자는

"지체장애인 밴드 단원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후원금을 마련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이들을 지원하고 싶다"고 말했다.

제주지장협 부형종 협회장은 "지역 장애인에 관심을 가져준 제주시여성대학 13기에 진심으로 감사하다"며 "지체장애인 밴드 'MEP' 단원들에게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사단법인 한국지체장애인협회는 전국에 17개 시·도 협회와 231개 시·군·구 지회를 두고 있는 비영리 순수 장애인단체입니다.

또한 이 나라 500만 장애인들의 삶의 질 향상과 자립을 위해 장애인 고용촉진사업, 각종 교육사업, 장애인예술제 및 중증장애인배우자 초청대회, 장애인자립작업장 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전개하고 있는 대한민국 장애인복지를 선도하고 있는 단체입니다.

여러분의 작은 정성이 모여 장애인복지를 꽃피우고 이들이 다시 국가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 것으로 확신하며 '사랑 나눔 운동'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거듭 당부 드립니다.

### ■ 회원구분

일반회원1 (2천원/월)	일반회원2 (5천원/월)	일반회원3 (1만원/월)
특별회원1 (3만원/월)	특별회원2 (5만원/월)	특별회원3 (10만원/월)
단체회원 (연 20만원이상)	기금회원	물품회원

### ■ 후원금 납부방법

- 자동이체, CMS
- 후원계좌 : 국민 822-01-0136-451  
농협 033-01-174991
- ※ 후원금은 연말에 소득공제용으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 ■ 후원신청

- ① 전화신청 : ☎02)796-4280
- ② 홈페이지 신청  
협회 홈페이지(<http://www.kappd.or.kr>) 접속 - 나눔마당 - 후원신청

### ■ 2014년 4월 후원자 명단(가나다 순)

김경희, 김구환, 김영진, 김인수, 김정기, 김정태, 김정훈, 김준곤, 김진호, 김천장애인종합복지관, 김형욱, 김환경, 박소연, 박종형, 반형만, 배태환, 서동녀, 선병욱, 아워홈, 우지현, 원종빈, 유재복, 육근록, 윤채환, 이은정, 이태훈, 임재중, 장추자, 정다운, 정선용, 주명희, 주승운, 주영래, 중랑구립장애인직업재활센터, 하정미, 황보훈, 황정연.

(후원자님이 후원해 주신 후원금은 500만 장애인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쓰여 질 것입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사랑을 부탁드립니다.)





2014

# 장애인종합민원상담 실무자교육

■ 일 시 : 2014. 7. 3.(목) ~ 7. 4.(금) 1박2일

■ 장 소 : 청풍리조트 (충북 제천시 소재)

■ 대 상 : 장애인 상담 실무자 200여명

■ 주요내용

- 장애인복지정책
- 상담정보활용 및 개인정보보호
- 제도개선을 주제로한 분임토의
- 시·도별 사례발표
- 상담의 이해 및 장애유형별 상담 기법